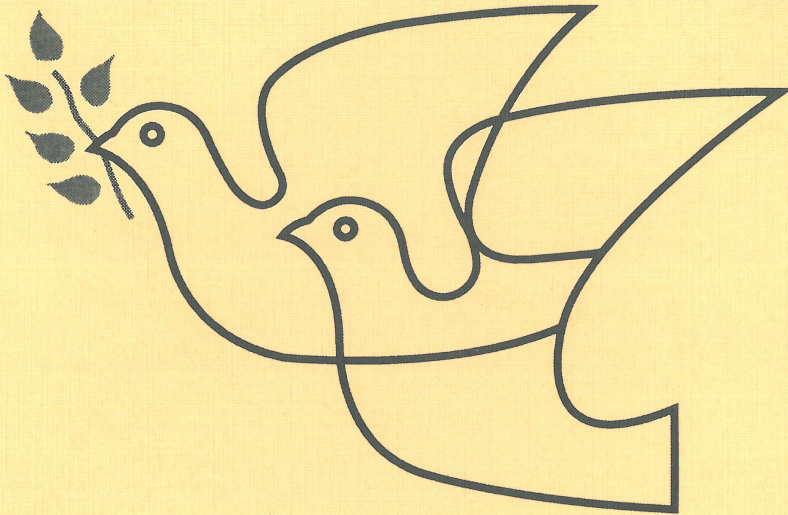


2000년

# 제4차 정기총회 보고서



일시 : 2000년 1월 25일(월) 오후 5시30-9시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3층 청산교육장

사단  
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2264-8649, 2275-4860 / 전송:2275-4861 / 천리안ID:WMP  
홈페이지: <http://wmp.jinbo.net>





2000년

## 제4차 정기총회 보고서



일시 : 2000년 1월 25일(월) 오후 5시30-9시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3층 청산교육장

사단  
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2264-8649, 2275-4860 / 전승: 2275-4861 / 천리안ID: WMP

홈페이지: <http://wmp.jinbo.net>



## 목 차

총회 순서

1999년도 사업평가 / 7

사무처보고 / 9

중앙사업평가 / 35

각 위원회 사업평가 / 39

감사보고서 / 79

2000년도 사업계획안 / 81

사업방향 / 83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 85

2000년도 월별 사업계획안 / 91

정관 / 93

1999년도 정관 / 93

2000년도 정관개정안 / 99

운영규정 / 101

금모음 / 105



## 중회순서

### 제1부 : 식사

### 제2부 : 정기총회

성수보고  
개회선언  
회순재택  
개회사  
전 회회록 낭독  
1999년 사업보고  
-사무처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조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관리위원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감사보고  
1999년 회계결산보고  
정관개정 및 채택  
신임 임원 선출  
신구 임원 교체식과 인사

2000년 사업계획안 채택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관리위원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0년도 예산안 채택

기타토의  
회회록 판용  
폐회선언

의장 : 이우정 수석대표

서기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서기

사무총장 김숙임  
위원장 최만자  
위원장 고은실  
위원장 이은선  
위원장 이현숙  
위원장 윤명선  
원 장 정현백  
감사 이문우, 윤영여  
회계 노길림  
의장  
의장  
신구 임원과 운영위원

위원장 최만자  
위원장 고은실  
위원장 이은선  
위원장 이현숙  
위원장 윤명선  
원 장 정현백

의장  
의장  
의장  
의장

### 제3부 : 평화의 축제

2000년 회원들의 삶과 소망 나누기, 평화의 탐스, 회원들의 장기자랑 등





# 1999년 사업평가

(1999. 3.5 - 1999. 12.31)

---

1. 사무처 보고
2. 사업 방향 평가
3. 각 위원회 사업평가



# 1. 사무처 보고

## 1. 회의

### (1) 1999년 제3차 정기총회

1) 일시: 1999년 3월4일(목) 오후 4:00-7:00

2)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3) 성원: 참석자42명, 위임157명(199명 참석)

4) 순서

① 제1부 강연: 일본 군국주의화(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과 99년 전망/김윤옥 공동대표

② 제2부 총회

③ 제3부 알나누기 살나누기

5) 안건

① 1999년도 사업보고

② 2000년도 사업 계획안 채택

③ 1999년 결산보고, 2000년 예산안 채택

④ 경관 개정과 신임임원 및 운영위원 인준

### (2) 이사회

\* 구성 :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김지영, 박정수, 윤순녀, 이정자, 이미경, 최승혜, 김숙임(이상 11명)

#### 1) 2000년 상반기 이사회

① 일시: 2000년 1월20일(목) 오후6시

② 장소: 서실레스토랑

③ 참석: 이우경, 김윤옥, 김지영, 윤순녀, 이미경, 이정자, 이현숙, 정현백, 김숙임

④ 배석: 이문우(감사)

⑤ 안건: 1999년 사업평가, 2000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1999년 회계결산 검토, 2000년 예산안 논의, 운영위원 인준, 경관 개정과 운영규정 개정 논의, 인사 규정 검토.

### (3) 공동대표단 회의

\*구성: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김숙임

#### 1)1차 대표자 회의

①일시: 1999년 3월11일 목요일 오후 3시

②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김숙임(대석: 안수경, 김엘리)

④안건: 우리민족서포터즈운동의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여성계 남북대표단'문제, 일-미 방위협력지원(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 연대집회, 탈북여성실내조사결과와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사무실 이전 문제 등

#### 2)2차 대표자 회의

①일시: 1999년 4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

②장소: 서울문화회관 사랑방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김숙임

④안건: 보고에 관한 건, 5.24행사에 관한 건, 케이그 평화회의에 관한 건, 월드컵에 관한 건, 후원회원 간담회에 관한 건 등

#### 3)3차 대표자 회의

①일시: 1999년 6월28일 토요일 오후 2시

②장소: 세실 레스토랑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④안건: 우리민족서포터즈운동의 여성방북단에 관한 건, 정대협 가입에 관한 건, 민족회의의 평화연대체 구성에 관한 건, 시민단체들의 햇볕론지지 성명에 관한 건, 김엘리정책국장의 사임에 관한 건, 예이콘 설치에 관한 건 등

#### 4)4차 대표자 회의

①일시: 1999.12월3일 금요일 낮 12시

②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김숙임

④안건: 한일국제평화심포지움 개최에 관한 건, 사무처 실무자에 관한 건, 평화기금행사, 여성재단의 출연금에 관한 건 등

#### 5)5차 대표자 회의

①일시: 1999년 12월28일 화요일 오후 2시

②장소: 인사동 다올찾김

③참석: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김숙임

④안건: 실무자 인선에 관한 건

#### (4) 운영위원회

- \* 구성: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이상 공동대표), 한국연(서기), 조영희(부서기), 노길림(회계), 조영숙(부회계), 김숙임(사무총장), 최만자(정책기획위원장), 고은실(평화동일사업위원장), 이은선(평화교육위원장), 윤명선(재정조직관리위원장), 김보주, 이영순

##### 111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1999년 4월 9일(금) 오후 2시

②장소: 본 회 사무실

③참석: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노길림, 윤명선, 이영순, 조영숙, 조영희, 최만자, 김숙임

④안건: 임미신가이드라인 후속프로그램의 건, 군속의경감시단 육사의 건, 평화교육심포지엄의 건, 특이그회의 참여의 건, 후원회원과의 만남 개최의 건, 평화교육 실시의 건, 여성평화운동경험육사의 건, 탈북여성프로그램, 로고 제작의 건 등

##### 212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1999년 6월10일(목) 오후 3시

②장소: 본 회 사무실

③참석: 이우정, 이현숙, 정현백, 노길림, 최만자, 이은선, 고은실, 조영숙, 김숙임

④안건: 8.15 평화집회인, 진달래와 함께 하는 평화가족캠프, 후원회원 간담회, 아셈/10월 연차오 대회 참여의 건, 탈북여성프로그램 검토 등

##### 313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1999년 8월23일(월) 오후 2시

②장소: 여성평화의 집 1층,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③참석: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윤명선, 노길림, 조영희, 이영순, 김숙임

④안건: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의 건, 2000 평화문화의 해에 관한 건, 금강산기행에 관한 건, 비종구비의 건, 정대협가입의 건 등

##### 414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1999년 10월 27일(수) 오후 3시

②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윤명선, 이은선, 한국염, 조영숙, 고은실, 김숙임

④안전: 후원회원 초청간담회의 건, Peace Festival에 관한 건, 총준위 구성의 건 등

#### 515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1999년12월22일(수) 오후 4시

②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최만자, 정현백, 이은선, 한국염, 조영희, 김숙임

④안전: 사무처 실무자의 건

#### 61일시 운영위원회

①일시: 2000년 1월13일(목) 오후 2시

②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③참석: 이우경, 이현숙, 노길림, 한국염, 조영희, 김숙임

④안전: 1999년 12월 회계보고 차리에 관한 건, 운영위원 보선에 관한 건

### (5)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사무처

#### 111차 총회준비위원회

①일시: 1999년12월22일(수) 오후 4시

②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③참석: 이우경, 김윤옥, 최만자, 정현백, 이은선, 한국염, 김숙임  
(대석: 안수경, 김정수)

④안전: 1999년 사업방향 평가, 각 위원회 사업 평가, 본 회 조직정비에 관한 건, 총회프로 그램에 관한 건, 2차 총준위와 이사회 일정 및 안전 점검 등

#### 212차 총회준비위원회

①일시: 2000년 1월13일(목) 오후 2시

②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③참석: 이우경, 이현숙, 노길림, 한국염, 조영희, 김숙임  
(대석: 안수경, 정경환, 김화숙)

④안전: 2000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 정관계정안 검토, 2000년 예산안 검토, 총회 순서 확정, 모범회원 논의 등

## (6) 각 위원회 회의

- 1)정세기획위원회: 4회
- 2)평화통일사업위원회: 5회
- 3)평화교육위원회: 7회
- 4)국제협력위원회: 2회
- 5)재정조직위원회: 9회

## (7) 사무처 회의

\*구성: 김숙임(사무총장), 안수경(조직국장), 김혜리, 김정수(정책국장), 김연수(인연)

### 1)정기회의: 매주 1회

안건: 사업활동 진행 보고와 검토, 평가, 논의, 사업활동 계획, 연대활동과 타 단  
체와의 활동보고와 요청한 건에 대한 처리 논의, 기타

### 2)특심: 2000년 평화교육 프로젝트에 관한 특심

①1차 회의: 정경안, 김정수, 안수경, 최지은, 김숙임

②2차 회의: 정경안, 김정수, 안수경, 김숙임

## 2. 주요 사업활동 일시(1999년 3월 4일-12월 31일)

### 1999년

- 3.4 제3차 정기총회
- 3.18 제2차 전달대회 무궁화 모임
- 3.19 탈북여성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3.19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한 김희(9개 단체 공동)
- 3.19-4.12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한 서명운동 및 일본에 서명서 전달
- 3.23-3.27 IAEA와 WHO협정 개정 청원서에 관한 서명운동 전개
- 4.6 제3차 전달대회 무궁화 모임
- 4.15 일미 신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기자회견
- 4.28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 5.3 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논쟁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전달
- 5.7 여성·평화 연구총서 과당회
- 5.7-10 IFOR 헤이그 평화회의 여성준비협의회 참석



5.11-15	헤이그 평화회의 참석
5.19	제4차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5.20-9.2	군여산 남비방지를 위한 군속의경감사단 직살(6차례 진행)
5	양문소식지 발행
5.25	5.24 평화와 군속을 위한 새끼여성의 날 심포지움 개최
6.5	제4차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6.5-10.30	여성의 통일외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외식 함양방안 연구
6.7-8.9	제1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주1회 진행)
6.24	제5차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6.25-7.23	평화상징과 표어 현상공모
6.25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운동가와의 간담회
6.26	평화여성회 지도용지 개설 승인
7.10-11	진달래와 무궁화 평화가족 캠프
7.16	탈북여성 정책토론회
7.28	평화상징과 표어 공모작 심사
8.9	제1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수료식
8.11	평화외식 확산과 회원 확대를 위한 울산 YWCA 방문
8.15	비폭력 평화공존외식 확산을 위한 제1차 평화문화 캠페인
8.15	2000년 평화문화의 해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서명 운동
8.24	제7차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9.3-4	갈증해소와 관용형성을 위한 채식 개최
9.8-10.19	국경감사 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 활동 시작
9.30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Women's Peace Line"형성을 위한 제안서 발송
10.6	제8차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10.13	여성들의 통일외식 함양방안 모색을 위한 과담회
10.14	비폭력 평화공존외식 확산을 위한 제2차 평화문화 캠페인
10.19	비폭력 평화공존외식 확산을 위한 제3차 평화문화 캠페인
10.30	1999년 정책협의회(제4차)
10.27-12.22	여성평화운동론 정립을 위한 위삼(월 1회)
10.30-11.8	네팔 Girl Child Peace Camp 한국 참가자 파견
11.4-6	제2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및 수료식
11.12	후원회원 초청 간담회
11.23	제9차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12.11	제10차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12.11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12.13-17	평화건설을 위한 여성들의 미디어 기술 사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열 력활동
2000년	
1.7	신년학예회

### 3. 홍보, 출판 활동

(1)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1999. 봄호, 8호, 1999. 5.15, 700부 발행

- 칼럼: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김윤옥
- 평화만들기 1: '미일방위협약을 위한 새 지침'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
- 평화만들기 2: 2000년을 향한 평화의 비전
  - 21세기 평화와 정의를 위한 책이그 야겐다
  - 한국NGO참가단 성명서
- 생각해봅시다: 평화를 교육하기 위하여
- 평화이야기 1: 평화의 징검다리가 되어/ 윤명선
- 평화이야기 2: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최경원
- 명상의 자리: 본주한 삶의 연속선에서의 자기점검/ 이나미
- 시사초점: 민족분규의 적전지, 코소보/ 윤덕희
- 선인 사무총장에게 듣는다/ 김숙임
- 1999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
- 소식
- 알립니다

(2)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1999년 겨울호, 통권 9호, 2000. 1.19, 700부 발행

- 칼럼: 2000년을 비추며, 평화문화의 해로/ 리김현숙
- 평화만들기: 제네바에서 이화구니까지/ 정경란
-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화여성화: 평화여성회를 만나며/ John Feffer
- 평화이야기1: "갈등해소와 관용형성을 위한 핵심"에 참가하고 나서/ 김봉심
- 평화이야기2: 평화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이명희
- 청소년의 눈으로 평화 보기: '99 Asia Girl Child Peace Camp 참가기/윤세효
- 평화기행: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안국
- 시사초점: 군가산점과 평화만들기/ 권길자
- 자료: 일조여성의 결의
- 소식
- 알림

- (3)영문 소식지 1999.6.20, 200부 발행
- (4)북한여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9.3.19, 200부 발행
- (5)평화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1999. 4.28, 200부 발행
- (6)일미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999.5.25, 200부 발행
- (7)21세기 평화운동과 여성-평화교육자료집, 1999. 11. 1 발행 200부 발행

#### 4. 국내 연대활동

##### (1)대외연대

#####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사회 : 김숙임
- 사무국장 회의 : 김엘리, 김정수
- 평화통일위원회 : 정현벽

##### (가)회의

##### 가-1. 이사회

##### ①제1차 이사회

- 일시 : 1999년 2월 24일(목) 오후 1시
- 장소 :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참석 : 김숙임
- 내용 : 3.4월 사업계획 심의, 99여성대회 디딤돌, 걸림돌의 건, 오히려 여성은분상 후보 선정, 매디어센터 설치의 건, 3.8여성대회 회원단체 동원의 건 등

##### ②제2차 이사회

- 일시 : 1999년 5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송실대 사회봉사관 대동강
- 참석 : 안수경
- 내용 : ①정복토의 : 호주세 폐지운동/ 여성연합 공동근로사업 평가  
②안건토의 : 5.8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 호주세계지총통 관련 사업단위 구성 논의의 건
- 더디어온통에 있어 회원단체의 참여 및 방법에 관한 논의의 건
- 38세계여성회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평가 및 결산의 건
- 신규 가입단체인준(한국여성장애인 연합 가입 승인 논의의 건)
- 여성연합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건
- 북경행동강령 이행 보고에 관한 논의 및 역할분담의 건
- 여성연합의 운동방향수립을 위한 수련회 논의의 건
- 99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도외

### ③ 제3차 이사회

- 일시 : 1999.9.7(화) 오후 1-6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 참석 : 김숙임
- 내용 : 정책도의(2000년 여성연합 운동방향에 대하여),  
안건도의(9.10월 사업계획,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승인, 여성장임위원회 설치 등)

### ④ 제4차 이사회

- 일시 : 1999. 12.3(금) 오후1-8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 참석 : 김숙임
- 내용 : \* 정책도의(여성연합의 정치방침에 대하여)  
\* 안건도의(12월 사업계획 심의, 총회준비회 구성 및 안건 점검, 99년 여성운동10대 뉴스선정, 민권과 폭력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행진에 대한 논의 등

## 가-2 통일평화위원회

### ①제1차 통일평화위원회

- 일시 : 1999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여연회의실
- 참석 : 정현덕 (본회 공동대표, 여연통평위원장)
- 안건 : ①1999년 세부 사업계획 논의  
-여성적 관점에서 정부의 통일정책평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도의  
-5.24평화군축의 날 기념- 군축을 촉구하는 행사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사업 및 북한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통일시대를 대비한 젊은 여성에 대한 평화캠프(학살) 진행  
②통일평화교육-평화캠프 점검의 건

### ②제2차 통일평화위원회

- 일시 : 1999년 3월24일(수)
- 장소 : 여인회의실
- 참석 : 정현택
- 안건 : ①제1차 정책토의(발제:년간통일운동의 평가와 전망,김창수)  
②통일평화 문화연프와 금강산 관광준비

#### ③제3차 통일평화위원회

- 일시 : 1999년 5월 4일(화) 오후 3시
- 장소 : 여성연합 회의실
- 참석 : 정현택(본회 공동대표, 여성연합 통일위원장)
- 안건 : ①제2차 정책토의 :현시기 평화건축운동의 방향과 향후 전망  
발제: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②5.34평화와 건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관한 논의

#### ④제4차 통일평화위원회

- 일시 : 1999.10. 8 (금) 오후2시
- 장소 : 여인 회의실
- 참석 : 정현택, 김숙임(평화교육프로그램 관련 참석)
- 내용 : 갈등해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평화교육 관련 향후 계획 논의 등

#### ⑤제5차 통일평화위원회

- 일시 : 1999.12.1(수) 오후2-5시
- 장소 : 여인회의실 1층
- 참석 : 정현택, 김숙임(사업계획 논의)
- 내용: >정책토의 -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발제:정현택)  
\*안건토의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와의 연대관계, 1999년 사업평가, 2000년 사업계획 등, 위원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에게 참여를 요구하기로 하다.

### 가-3 사무국장 회의

#### ①제2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9년4월22일(목) 오후2-6시
- 장소 : 여성연합회의실
- 참석 : 김일리
- 내용 : 여성연합, 회원단체 주요사업보고, 여인사무처장 미국방문보고, NGO의 활동원칙과 향후방향에 대하여(정책토의)

#### ②제3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9년6월21일(월) 오후1:30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내용 : 정책토의:GO와 NGO의 관계정립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국장 여름수련회의 건

③제4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9년 9월13일(월) 오후 1:30-5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내용 : 여성연합 2000년 운동방향에 대하여, 여성연합 회원단체 지역조직 확대원칙 공유 및 과제 등

④제5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9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 참석 : 김정수
- 내용 : \*정책토의(장외:세계화와 대안운동의 전제, 생산참여형 소비자 운동사례를 중심으로-강사:이정옥 효성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 교수)  
\*안건토의: 1999년도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평가 및 2000년 사업방향

내사업참여

①38여성대회 참가

- 일시 : 1999년 3월 7일(일) 오후 2시
- 장소 : KBS 홀
- 참석자 : 탈북여성 13인, 탈북여성 전우 2인, 이우경, 김용옥, 이현숙, 정현택, 손덕수, 권경화, 최경원가족, 박예경, 안은영,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등
- 내용 : 38 여성대회 개최사, 율리의 여성상 수상, 결림플, 디딤플 수상, 새로운 천년 여성문화제 수상자 발표회, 기념공연, 부스설치 등
- 참가내용 : 부스설치, 전달대공연 (새로운 천년 여성문화제 특별상 수상)

②여성연합 정책수련회

- 일시 : 1999.7.18-19(월-화)
- 장소 : 천안 아우내재단
- 주제 : 21세기 여성운동의 철학과 방향
- 참석자 : 정현택, 윤명선, 강남식, 김숙임

③여성연합의 후원의 밤, 초가을밤의 땃놀이

- 일시 : 1999.9.17(금) 오후 7-10시
- 장소 : 한강 유람선
- 참석 : 정현택, 김숙임

④여성단체 기금조성 사업을 위한 전문가 훈련

- 일 시 : 1999년 4월 19일(월)-21일(목)까지 2박3일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
- 내 용 : 기금조성 사업을 위한 훈련 및 위삼
- 참 석 : 안수경

⑤한국여성단체연합 제15차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00년 1월 10(월)~11(화)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
- 내 용 : 1부-정책토의 2000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하여/지은희  
 빈곤과 폭력추방에 대하여/신혜수  
 여성과 정치적 주류화 사업에 대하여/이경숙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남인순  
 2부-정기총회
- 참 석 : 이우정, 이현숙, 정현덕, 김숙임, 정경란

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①제1차 여성위원회

- 일시 : 1999년 3월 19일(금)
- 장소 :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
- 참석 : 이현숙(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여성단체대표 등 22명 참석)
- 내용 : 여성위 조직 논의, 1999년 사업계획 심의와 채택

1999년 사업계획 - 금강산 관광 선상토론회(10월 말-11월 초), 민화협 여성포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후원, 통일정책에 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단체의 통일운동 지원 및 여성단체간 통일운동네트워킹 활성화, 남북 여성포럼 협력의 활성화, 북한이탈 여성과의 교류

②제2차 정책토론회

- 주제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평가와 활성화 방향
- 일시 : 3월 25일 오후 2-5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참석 : 이우정 수석대표, 김운옥 공동대표

③제2차 여성위원회

- 일 시 : 5월 7일(금) 오후 4시
- 장 소 : 민화협 사무실
- 안 건 : 제1차 여성포럼에 관한 논의, 금강산 통일기행에 관한 건
- 참 석 : 안수경

④제1차 민족화해를 만들어 가는 여성포럼

- 일시 : 1999.6.11.(금)오후 2-5시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제 : 민족화해와 여성의 역할
- 주관 : 민화협 여성위원회
- 본회참석 : 이우경(진체평가), 정현택(도론), 이현숙,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조연지

#### ⑤ 민화협 후원의 밤

- 일시 : 1999.8.11.(수) 오후 6시
- 장소 : 63빌딩 코스모스홀
- 후원금 : 10만원
- 참석 : 이우경 공동대표, 이현숙 공동대표

#### ⑥ 8.15 저려손잡기 참여

- 일시 : 1999.8.15. 오후 4시-5시
- 장소 : 갈현초등학교/진관내동 구역
- 주관 : 민화협 여성위원회
- 본회참석 : 이현숙, 정현택, 고은실, 권혜순, 최영숙, 장인숙, 조연지, 주영희, 김정화,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남경희, 김연수, 김남형, 태해사막의 어린이 50여명

#### ⑦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815인 여성선언에 참여

- 선언참여자 : 이우경, 정현택, 김윤옥, 이현숙, 최만자, 윤명선, 이은선, 고은실, 장남식,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윤순녀, 김엘러, 오(권)혜순, 정숙자, 한국영, 박여경, 박미순, 조영희, 고은광순, 손덕수, 조영숙, 서여숙, 장순원, 차인순, 김정화, 최경원, 태옥명, 강도승, 문화영, 최영숙

#### ⑧ 통일로 가는 여성들의 금강산 기행

- 일시 : 1999.10.18(월)-21(목)
- 장소 : 금강호, 금강산
- 참석 : 이우경, 이현숙, 윤명선, 윤덕희, 박여경, 전현택, 김순영, 정순환 등
- 내용 : 민족화해를 여는 여성포럼 참여 및 발표, 평화문화행제인

### 3) 한국대인지리대체회의

#### ① 정기총회

- 일시 : 1999년 3월 24일(수)
- 장소 :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 참석 : 김윤옥, 이현숙, 김숙임
- 내용 : 사업보고, 임원소개, 안건동의  
이현숙 공동대표가 본회의 대표로서 KCBL 부대표로 선출되다.,  
김윤옥 공동대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표로서 KCBL 부대표로 선출되다.

#### ② 집행위원회

- 일시 : 1999. 4 16(금) 오후 2시
- 장소 : 기사연 회의실



- 참석 : 김숙임
- 안건 : 총회 결산보고, 브로셔와 피해자 자료집 발간예정, 연회비(50,000원) 요청, 향후 일정 5월 헤이그국제평화회의, 6월 세미나, 10월 세계NGO 대회 11월 조디 윌리엄스 방한 DMZ행사

#### ③제1차 연구모임

- 일시 : 1999.7.8(화) 오전 9:30
- 참석 : 김숙임, 태러사박
- 내용 : 대인지회 구조와 문제

#### ④제2차 연구모임

- 일시 : 1999.8.10(화) 오전 9:30
- 참석 : 김숙임,
- 내용 : 대인지회에 관한 국제법과 대응운동

#### ⑤김행위원회

- 일시 : 1999.8.16(월) 오전 11:30
- 참석 : 김숙임

#### ⑥원주영장교회 대인지회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예배

- 일시 : 1999.8.29(일)
- 장소 : 원주영장교회(대표 서계일복사 시무)
- 참석 : 이현숙
- 내용 : 대인지회반대운동을 위한 모금활동

#### ⑦김행위원회

- 일시 : 1999.9.14(화) 오전10시
- 장소 :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회의실
- 참석 : 김숙임
- 안건 : 임원진 개선, NGO서울대회 경과보고 참가, 지회피해자 보고 등

#### 중지회의 유용성 상실과 지회피해의 현실 세미나

- 일시 : 1999.10.12(화) 오후4시
- 장소 : 올림픽공원 한일광장A-2
- 참석 : 김숙임

## 4) 국정감사 시민연대

### (가)회의

- 대표단회의 : 이현숙, 김숙임
- 연대회의 : 안수경, 김숙임, 김연수
- 간사단회의 : 안수경

## 가-1. 연대회의

### ① 제1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7월 7일(수) 오후2시-5시
- 장소:참여연대 강당
- 내용:국감상임위 시민감사의 효율적 전략, '99국경감사 시민감사를 위한 몇가지 제안
- 참석:안수경

### ② 제2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7월 14일(수) 오후2시-5시
- 장소:경실련 강당
- 내용:각 상임위 별 간사단체 태경/ 전제임정 경하기/ 분담금
- 참석:김연수

### ③ 제3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8월 11일(수) 오후2시-8시
- 장소:홍사단 강당
- 내용:상임위별 정책과제 선정내용 공유/ 국정감사의 이론과 실제 강의
- 참석:안수경

### ④ 제4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8월 25일(수) 오후2시-4시
- 장소:경실련 강당
- 내용:상임위별 정책과제 선정내용 공유/공통사무국 구성/ 사이버 국감운영의 건/공통대표 구성의 건/ 국감시민연대 추가단체 선정의 건 등

### ⑤ 제5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9월 16일(목) 오전10시
- 장소:국회후생관 2층 강당
- 내용:상임위별 정책과제 선정내용 공유/공통사무국 구성/ 사이버 국감운영의 건/공통대표 구성

### ⑥ 제6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9월 17일(금) 오전11시
- 장소:국회국민식당
- 내용: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최종 논의

### ⑦ 제7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9월 28일(화) 오후4시
- 장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7층 강당
- 내용:모니터 측정지표 워프 안내 및 설명,책략의 건/ 각 언론사 일경 확인의 건/ 국감시민연대 상임위 단체 활동 원칙에 관한 건/ 모니터 결과 공개의 건/ 기타

- 참석:안수경, 김연수
- ㉞ 제8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10월 7일(목) 오전10시
  - 장소:환경운동연합 강당
  - 내용:국감 시민연대 모니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건/ 방청불허 상임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건 등
- ㉟ 제9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10월 9일(토) 오전10시
  - 장소:경실련 강당
  - 내용:각 상임위별 국감진행상황 점검/ 방청불허 상임위에 대한 대응의 건/ 10월 11일 기자회견의 건 등
- ㊱ 제10차 연대회의
  - 일시:1999년 10월 19일(화) 오후4시-6시
  - 장소:홍사단 강당
  - 내용:국감시민연대 최종 모니터 결과 공개 방식에 관한 건/ 국감시민연대 최종 평가모임에 관한 건 등
  - 참석:안수경

#### 가-2 각 상임위 간사단체회의

- ① 제1차 상임위 간사단체 연대회의
  - 일시:1999년 9월 2일(목) 오후2시 30분
  - 장소: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 내용:'99국감연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의 건/ 각 상임위 정책과제 정리의 건/ 발대식 준비 역할분담의 건/ 모니터 요강 마련의 건/ 정책과제 발표시기 논의의 건/ '99국감연대 공식명칭 논의
  - 참석:안수경
- ② 제2차 상임위 간사단체 연대회의
  - 일시:1999년 9월 10일(금) 오전11시
  - 장소:국회후생관 2층 강당
  - 내용:각 상임위별 평가과제를 주요정책과제와 정점사항 이원화의 건/ 모니터 측정지표 작성의 건/ 국회의장 및 3당 원내총무 방문의 건/ 국감시민연대 홈페이지 활용의 건/ 향후 국감시민연대 일정의 건
- ③ 제3차 상임위 간사단체 연대회의
  - 일시:1999년 9월 15일(수) 오전10시
  - 장소:환경운동연합 강당
  - 내용:모니터 과제 선정의 건/ 모니터 측정지표 작성의 건/정책과제 발표와 기자회견에 관한 건/ 정책과제 전달에 관한 건/ 3당 원내총무 면담에

### 관한 건 등

- 참석: 안수경
- ④ 제4차 상임위 감사단체 연대회의
  - 일시: 1999년 9월 10일(금) 오전11시
  - 장소: 국회후생관 2층 강당
  - 내용: 각 상임위별 평가과제를 주요정책과제와 정책사항 이원화의 전/ 모니터 측정지표 작성
- ⑤ 제5차 상임위 감사단체 연대회의
  - 일시: 1999년 10월 16일(토) 오전10시
  - 장소: 참여연대 강당
  - 내용: 국감시민연대 최종 모니터 결과 공개 방식에 관한 전/ 방청불허 상임위에 대한 대응의 전/ 10월 11일 기자회견의 전 등

### 가-3 연대행사 참여

- ① 국정감사 전략을 위한 획삼
  - 일시: 1999년 9월 8일(수) 오후4시-6시
  - 장소: 참여연대 강당
  - 내용: 국정감사 전략을 위한 획삼
- ② '99국감시민연대 발대식 및 기자회견
  - 일시: 1999년 9월 8일(수) 오전11시
  -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강당
  - 내용: 대표 인사말/ '99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낭독/ Mission Statement 낭독/ '99국정감사 모니터 과제 발표/ 각 단체 소개 등
- ③ '99국정감사시민연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1999년 9월 17일(금) 오전11시
  - 장소: 국회후생관 2층 강당
  - 내용: 모니터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참석: 김숙임
- ④ 국감시민연대 위원평가 기준 및 모니터 담당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1999년 9월 28일(화) 오후1시 30분
  - 장소: 국회 기자회견실
- ⑤ 여야 3당 원내총무, 방청불허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 일시: 1999년 10월 2일(토) 오후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 내용: 방청불허 건의 및 각 단체의 입장 전달
  - 참석: 이현숙
- ⑥ 국방위 모니터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 집회

- 일시:1999년 10월 4일(월) 오전 9시30분
  - 장소:국방부 앞
  - 내용:방청허용 규탄 및 항의 집회/ 성명서 낭독, 방청을 위한 국방위 모니터단의 활동일지 낭독/ 규탄 발언 등
  - 참석:이현숙, 김숙임, 김경수, 안수경, 김연수
- ⑧ 3당원내 총무 간담회
- 일시:1999년 10월6일(수) 오후1시
  - 장소: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 내용:시민단체의 국감감사 방청권 보장 및 WORST발표방식에 대한 간담회 요청의 건
  - 참석:이현숙
- ⑨ 국감 방청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1999년 10월13일(수) 오전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 내용:정치권의 시민모니터단 활동 불허 움직임에 대한 입장
- ⑩ 국감시민연대 모니터 방청불허에 대한 연대항의 집회
- 일시:1999년 10월 13일(수) 12시
  - 장소:명동4거리 앞
  - 내용:방청허용에 대한 규탄 및 항의 집회/ 규탄 발언 등
  - 참석:안수경, 김연수
- ⑪ 국감시민연대 국감방청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 일시:1999년 10월 11일(월) -14일(목)
  - 내용: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국감방청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
- ⑫ '99국감시민연대 총괄평가 기자회견
- 일시:1999년 10월 20일(수) 11시
  - 장소:국회후영관
  - 내용:'99국감모니터 총평가 각 상임위 별 평가내용 발표 기자회견
  - 참석:김숙임
- ⑬ '99국감시민연대 평가 MIT
- 일시:1999년 10월 22일(금)-24(일)
  - 장소:지리산 피아골
  - 내용:'99국감모니터 총평가
- ⑭ 국감감사모니터시민연대 총평리 공청회
- 일시: 1999.11.11(목) 오전1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사회의실
  - 참석: 김숙임

가-4. 언론보도자료, 설명서, 합의서한, 기자회견 자료 모음

- ①국감시민연대 선정 국방위 국감모니터 과제(국방위원에게 전달)
- ②국방위 국정감사 방청 불허에 대한 항의서한(한영수 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
- ③국방위 국정감사 방청을 위한 면담 요청서(국방부 장관에게 전달)
- ④국방위 국정감사 방청을 위한 국방부 출입 허락 요청서와 방청허가 신청서(국방부 행정계 총무과장에게 전달)
- ⑤국방위 국정감사 방청 불허에 대한 항의서한(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에게 전달)
- ⑥국방위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의 국감방청불허에 대한 질의서(국방부 장관에게 전달)
- ⑦국정감사 의원평가 기준표
- ⑧국정감사 모니터 참가단체 명단
- ⑨국방위 국감 모니터 방청불허 규탄 설명서
- ⑩국감 방청희송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서
- ⑪'99국정감사 논평
- ⑫국감 방청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설명서
- ⑬국회 국감장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약문
- ⑭헌법소원심판청구서
- ⑮'99국정감사 모니터 총평
- ⑯'99국정감사 상임위별 약경(국방위원회 포함)
- ⑰상황실에 접수된 국방위 모니터단에 대한 독자 부고 내용과 우리의 입장
- ⑱기무사 병무비리 관련 철거수사 촉구 논평

5) 아셈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 ①준비위원회 결성식
  - 일시 : 6월 9일
  - 장소 : 종로성당
  - 참석 : 참여연대, 환경연, 녹색연합 등 51여개 단체 (김숙임)
  - 내용 : 아셈 2차 회의까지의 경과보고 및 1999년 준비과정  
한국민간단체 부문단체 참가 입장 및 제언
- ②아셈(ASEM) 2000 평화분과 준비모임(1차)
  - 일시 : 1999.7.23(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참석 : 평화여성회, 민족회의, 경실련통일협회, 좋은 벗들, 우리땅미군기지퇴출기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
  - 분회참석 : 김정수

- 논의사항 : 본회의 명칭(“평화분과”로 하기로), 간사단체(평화여성회, 민족회의), 아젠다 개발팀 조직 논의 등

③아셈 2000 평화분과 준비모임(2차)

- 일시 : 1999.8.5.(목)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 : 평화여성회, 민족회의, 경실련통일협회, 좋은 벗들, 우리땅미군기지지킴이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
- 본회의장서 : 김숙임
- 논의사항 : 의제개발 및 한국평화운동전략 논의

④아셈 2000 한국 민간단체 포럼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2차)

- 일시 : 1999.8.10.(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내용 : - 조직정비의 건
  - 공식사무국 등 기가기구 구성
  - 의제개발위원회 구성의 건
- 참석 : 김정수

⑤ASEM 2000 평화분과 3차 모임

- 모임성격 : ASEM Peoples' Forum Steering Committee 와 한국 평화분과와의 워킹
- 일시 : 1999년 8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 타워호텔
- 내용 :

①해이그 평화회의 후속사업 논의: 무기거래 감시: Martin Broke(AMOK-네덜란드)

②아셈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 Brid Brennan(TNE-네덜란드)

③아셈 평화분과의 아젠다 설정을 위한 제안: John Feffer(AFSC-미국)

-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시위 조직과 언론홍보
- 전역미사일 반대 시위(미국,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등지에서)
- 비핵지대화
- 다자간 대안안보체계
- 미군기지와 인간안보

· 본회의장서 : 이현숙, 김숙임, 김정수

⑥아셈 2000 한국 민간단체 포럼 준비위원회

- ASEM People's Forum Steering Committee 위원들과의 만남
- 일시 : 1999.8.16.(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내용 : ①한국준비위원회 준비보고 ②아시아-유럽의 진행상황 보고 ③아셈 2000을 위한 조직정비 ④아젠다
- 참석 : 김정수

⑦아셈 한국민간단체포럼 운영위원회

- 일시 : 1999.10.19(화) 오후4시
  - 장소 : 녹색연합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내용 : 각 분과별 의제 취합, 자료집, 참회준비 등
- ▶아셈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공식 참회식

- 일시 : 1999.10.26(화) 오후1시
- 장소 : 종교성당
- 참석 : 이현숙, 김숙임

▶아셈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 준비회의

- 일시 : 1999년 11월 30일(화) 오후 5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참석 : 김정수
- 내용 : 아셈 평화분과 회의록 보고, 아셈2000 민간포럼 한국운영위원회 참회대 회 보고, 평화분과 아젠다 논의("한국으로의 무기유입 통제에 대한 프 로젝트"에 있어서 각 평화단체의 역할분담, 평화여성회는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인간안보"에 관한 개념의 발전과 그 대중화 방안 모색 부분 의 역할을 맡는다), 평화분과 아젠다개발팀 구성(평화여성회, 민족회의, 평화인권연대,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등)

6)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①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

- 일시 : 1999.10.6(수) 오전10시
- 장소 : 향원교회
- 참석 : 이현숙, 김숙임
- 내용 : 공동대표 등 임원제지와 참여단체 확정, 사업계획, 성명서 채택 등

② 불평등한 SOFA 개정안 미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시 : 1999.11.3(수) 오후4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내용 : -SOFA와 현미관계(형사 및 시설과 기사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안)-이 장희교수  
-통관(관세),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장주영 변호사 등
- 참석 : 김정수

③ 향원교회

- 일시 : 2000.1.11(화), 2시
- 장소 : 미대사관 앞
- 내용 : 노근리 학살과 SOFA에 대한 향원 활동



· 참석 : 정길관

## 7) 유네스코 평화문화의 해

① 유네스코 평화문화의 해 1억인 서명을 위한 안내회

· 일시 : 1998.6.1(화) 오전 11:30

· 장소 : 명동 유네스코

· 참석 : 김숙임

② 유네스코 평화문화의 해 1억인 서명을 위한 기획위원회

· 일시 : 1998.8.6(금) 오후 2시

· 장소 : 유네스코

· 참석 : 김숙임

통평화문화의 해 서명을 위한 기획위원 간담회

· 일시 : 1998.9.2(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퀼타 국화실

· 참석 : 김숙임

· 내용 : 효과적인 서명자 과 단체화의 공동사업 논의

통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식

· 일시 : 1998.9.14(화) 정오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 : 이현숙, 김숙임

## 8) 일본 군사대국화와 열미 신가이드라인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

① 준비회의

· 일시 : 1999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본 회 사무실

· 참석단체 :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계혁국민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단체

· 내용 : ① 열미 신가이드라인 내용 공유 ② 성명서 검토  
③ 집회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 ④ 서명운동 기획

② 집회 개최

· 일시 : 1999년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종로 3가 탑골공원

· 참석자 : 9개단체 실무자 및 회원 30여명

· 내용 : 개회식, 연설 1, 연대사, 연설 2

· 본회 참석자 : 고은실, 김은옥, 이현숙, 노길원, 김숙임, 안수경, 김병라

#### ④서명운동 및 일본에 서명서 전달

- 기간 : 1999년 3월 19일~4월 12일까지
- 서명서 1차 전달 : 오부치 수상과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야마타카에게 한국의 처명 인사 112명의 서명명단과 시민단체의 입장 및 819명의 서명서를 4월 14일 일본에 발송
- 서명서 2차 전달 : 일본의 각 정당 대표와 일미방위협력지침에 관한 특별위원회 이사와 위원40명에게 112명의 서명 명단과 시민단체의 입장 및 서명자 819명의 서명서 발송

#### ⑤일미 신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기자회견

- 일시 : 1999년 4월 15일 (목) 오전 11시~12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실련통일협회, 종교인협의회,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족회의, 참여연대, 교회여성연합회, KNCC, 한국여성단체연합 (9개단체)
- 내용 : 사회:경병희, 인사말:이창복, 연설:이장희, 경과보고 및 일미방위협력지침 경과설명:김용욱, 설명서 낭독:이경숙, 설명서 전달방식 및 후속활동발표: 김진우
- 참석 참석자 : 김용욱, 경병희,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김정수, 김경화

#### ⑥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입장 전달

- 일 시 : 1999년 5월 3일 월요일
- 보도요청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실
- 참여단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8개 단체)

### 9)서해교전사태 관련 연대활동

#### ①서해교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 일시 : 1999.6.16(수) 오전10:30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내용 : - 경과보고  
- 서해교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긴급공동성명

-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의 21개 단체

- 참석 : 이현숙(성명서 낭독), 김숙임, 안수경

#### ②서해교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긴급공동성명

- 일시 : 1999.6.16(수)
- 단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타 : 본 성명서는 WILPF의 국제실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정식 성명서로 채택된

#### ③서해교전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 일시 : 1999.6.18(금) 오후 3-6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내용 :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보고와 상황이해
- 참석 : 이현숙(논란),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김연수

## (2)대의 활동

①화해와 관용에 관한 공동의상 (본회, AFSC, 여연, 민족회의 공동주관)

①준비회의 : 2월 15일, 3월 2일 여연회의실

①참석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김숙임), 여연(조영숙), 민족회의(김창수), 정경관(2월), AFSC(John)

②경과내용 : 각 단체들이 AFSC와 평화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하다가 공동주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 대상 : 여연, 평화여성회, 민족회의 회 / 남녀활동가 중심 20-25명

· 내용 : 갈등해결 기술과 능력 증진, 관용훈련(갈등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 테크닉 전수)

· 강사 : AFSC에서 2명 추천하기로 함.

②헤이그 세계평화회의 준비회의

· 일시 : 4월 12, 20, 27, 5월 4일

· 장소 : 여성평화회의 집 지하회의실

· 참석 : 평화인권연대, 참여연대, 민족회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4개 단체

· 내 용 : 헤이그대회에 관한 홍보와 한국참가단 설명서 내용준비, 부스 등 활동내용 논의 및 공유

· 참 석 : 이현숙, 김영리, 김숙임(5월6일 세민재단, 시민협 관련 헤이그 준비간담회에 참여)

③기독교사회발전협의회 사회발전사업평가모임

· 일시 : 1999. 4.22(목) 오후 4시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참석 : 김숙임

· 내용 : 아시아 사회운동간의 연대방안, 기사협의 사회발전사업지원 정책과 전망, 사회발전사업 사례발표 등

④동티모르 지원을 위한 연대시위

· 일시 : 1999. 9.14

· 장소 : 인도네시아 대사관

· 참석 : 김정수

⑤동티모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한국여성단체들의 편지 발송

· 일시 : 1999. 9. 22

· 내용 :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대통령에게 편지 : "동티모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여성단체들의 편지" (보부록자료 참고)

- 참가단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어성민우회,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기독교이민회(이상 7개 단체)

### (3)기타활동

- 1)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사업실명회 참석(3.17, 김숙임)
- 2)고 재훈제 선생님 민주사회장 참여(3.18,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김숙임)
- 3)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단체장 간담회 참석(3.24, 이우정, 김윤옥)
- 4)탈북여성생활실태조사 결과 평화방송 방송(3.25, 김젤리)
- 5)YTN, MBS, 라디오, 동아일보, 시민의신문사 등 탈북여성생활실태조사 결과 관련 인터뷰(김젤리)
- 6) '99 북한 농업·식량·의료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제 1차 준비회의(4.2, 김숙임)
- 7)통일맞이 - 노동 문익환 목사 방북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우정, 이현숙, 김윤옥)
- 8)남북한 군사력 평가와 적정군사비수준에 관한 포럼 참석(4.24, 김숙임, 고은실)
- 9)탈북여성들과 함께 하는 생필품 나누기 물건 수집을 위한 청년여성문화원 방문 (5.3, 안수경, 김정수)
- 10)고 이현애 목사님 여성신학강 참석(5.24, 김숙임, 김젤리, 김정수)
- 11)김윤옥 공동대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취임식 참석(5.21, 안수경)
- 12)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5주년 기념 강연회 및 기념식(5.29, 이우정, 안수경)
- 13)6.5 세계행동의 날 집회 참석(6.4, 김숙임, 김정수)
- 14)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홍보를 위한 평화방송 통일초대석 방송 (6.4, 안수경)
- 15)8.15학술 행사 논의를 위한 모임 참석(6.4, 김숙임, 김정수)
- 16)이우정 수석대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식 참석(7.1, 최만자, 윤명선, 이현숙, 김숙임, 안수경, 이정자, 이문우 외 다수)
- 17)본회 이사 이미정 의원 후원의 밤(6.11, 이우정, 윤명선, 이현숙, 정현백, 박애경, 고은광순, 김숙임, 안수경 외 다수)
- 18)미군기지 아래전야회의 참석 (6.25, 김정수, 테레사 박)
- 19)고 선순화 목사 2주기 추모예배 및 출간기념회 참석(7.2, 김숙임, 김정수, 안수경)
- 20)한미행정협정 재정을 위한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참석(7.22, 김정수)
- 21)PEACE 21 대회 참석, "동북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발표 (8.10, 이현숙)
- 22)한반도 냉전 정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학술토론회 참석(8.13-14, 김윤옥, 이현숙, 김숙임, 김정수)
- 23)7.4 공동성명 기념행사 참석(7.4, 김숙임)
- 24)한국여성연구소 집들이 참석(7.8, 김숙임, 안수경)

- 25)경화교육편원 필간 우리교육 인터뷰(8.17, 안수경)
- 26)통일부 하나원 준공식 참석(7.8, 이우정)
- 27)여성인권운동 지원모임 통일대회 참석(7.9, 이현숙)
- 28)페이지 5 자경 한국보건서 작성함(8.13, 김정수 작성)
- 30)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8.27, 김현희, 육남식, 장남식, 김숙임, 김정수)
- 31)여성단체 기금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9.1, 김윤옥, 최경원, 김숙임)
- 32)참여연대 5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밤 참석(9.6, 이우정, 김숙임)
- 33) 월드비전 50주년 기념행사 참석(9.14, 이현숙)
- 34)한국여성재단(가칭) 발족을 제안하는 법 여성계 기자회견 참석(9.15, 이우정, 김윤옥, 김숙임)
- 35)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10주년 기념 및 출판, 심포지움 참석(9.16,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최만자, 윤명선, 김숙임, 김정수, 안수경)
- 36)행정자치부 프로젝트 중간평가 회상 참석(9.17, 안수경)
- 37)제9회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참석(10.1, 김숙임)
- 38)시민운동과 정부예산감시 회상 참석(10.12, 이현숙)
- 39)서울NGO대회 여국의 신세계질서전략과 21C 지구평화 토론회 참석(10.12, 이우정, 김숙임)
- 40)AFSC회장, 아리아스재단 실무자와 간담회, 무기확산봉제를 위한 회상 참석(10.13, 김숙임)
- 41)코라와이즈 웨이그 평화회의 의장과의 간담회 참석(10.14, 이우정, 김숙임, 김정수)
- 42)여성인권기금 후원회 밤 참석(10.25, 김숙임)
- 43)비광 여성소년회의 참석자와의 간담회 참석(10.16, 이현숙)
- 44)스코틀랜드교회 총회장 부인과의 간담회 참석(10.26, 이우정, 이현숙)
- 45)Christine Elliott Hall(영국감리교 아시아-대평양 담당), 임마리 장모와의 간담회 참석(10.26, 김숙임, 김정수)
- 46)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회 밤 참석(10.27, 윤명선, 김숙임)
- 47)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사업 보고회 참석(10.30, 정현백, 윤덕희, 장남식, 김귀옥, 김정수)
- 48)평화운동현황과 평화연구 토론회 참석(11.25, 이현숙, 김숙임, 정경란)
- 49)교육문화복지연구원 통일교육프로그램 참석(11.26, 김숙임)
- 50)제2회 전국시민단체대회 참석(11.26, 김숙임)
- 51)페이지+5 북경행동장람 이행평가 심포지움 참석(11.30, 이현숙, 김숙임)
- 52)북한여성센터 후원회청을 위한 기독교연합봉사회 방문(12.7, 김숙임, 김정수)
- 53)이대 여성연구소 통일문제세미나 북한식량과 여성 토론회 참석(12.10, 이현숙)
- 54)KIN 릴레이모임에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관련 토론회로 참석(2000.1.15, 안수경, 장인숙, 조연지)

## II. 1999년도 사업방향 평가

### 1. 제3차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방향 :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

#### (1)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식을 확산시킨다.
- ②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 정부활동을 강화한다.
- ③ 내부 사업기반을 다지고 회원확대에 힘쓴다.

#### (2) 사업방향에 따른 사업계획 내용

##### ① 평화교육사업활동

- 평화교육 확산과 평화교육 당위성을 여론화시키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여성대중을 위한 평화교육사업 실시
- 교사, 공무원, 사회운동단체 지도자를 위한 전문 평화교육 사업 준비
- 통일교육지원법의 현실적 정착을 위한 대정부 활동
- 초중고등학교, 일반사회교육에서 평화교육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제언활동

##### ② 회원들의 평화의식 내면화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활동

-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 활성화: 평화명상, 평화기행, 탈북여성우원모임, 평화학습 등
- 언론매체를 통한 평화캠페인 활동

##### ③ 통일사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

- 남북여성교류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
- 국내 탈북여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관계형성, 국외 탈북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모색
- 통일 후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화 모색

##### ④ 평화군축을 위한 활동

- 평화군축 당위성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중활동
-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 2000년 국발예산의 삭감과 사회복지 증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
- 대인지회제거를 위한 활동
- 국제여성평화군축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



#### ⑥바다를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자세한 내용은 평화통일사업위원회 사업 안 참조)

①사업수행위원회 : 평화통일사업위원회

②일시 : 1999. 8.15, 10.15, 10.19 등

③장소 : 8.15행사 - 갈현 초등학교 운동장, 올림픽경기장, 금강초 등

④내용 : 평화상징물 및 표어공모와 시상, 평화상징물제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생활지침과 상징물과 함께 평화를 위한 약속에 서명하는 캠페인 실시.  
유네스코에 서명용지 전달, 언론인대부와 홍보

#### ⑥북한이탈여성주민생활실태조사결과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 안 참조)

①사업수행위원회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②일시 : 1999.3.19(금) 오후 2:30-5:30

③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④내용 : 조사결과보고, 탈북여성의 복지와 지원대책,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여성으로서의 통일의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여성주민의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발달, 여성 북한이탈주민지원 현황과 계획, 민간단체 입장에서 본 지원 방안 등.

#### ⑦일미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를 위한 행동

(자세한 내용은 평화통일사업위원회 사업 안 참조)

①사업수행위원회 : 국제협력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②일시 : 3월-5월

③내용 : ㉠일미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를 위한 거리캠페인: 과고  
다공원 앞

㉡일미신가이드라인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참여연대 느리나무카과

㉢일본 수상과 총의원에게 일미신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시민  
단체들의 입장 및 합의서한 전달(DHL)

#### ⑧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심포지움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력위원회 사업 안 참조)

①사업수행위원회 : 국제협력위원회

②일시 : 1999.5.24(화) 오후 3-6시

③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④내용 :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일미신가이드라인과 일본 시민단체의 대응, 미군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군사화, 일본의 군사력 역할중대화 한 반도,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본 일미신가이드라인



### (9) 평화공존을 위한 활동

(자세한 내용은 평화통일사업위원회 사업 판 참조)

① 사업수행위원회 : 평화통일사업위원회,

② 일시 : 1999년 3월~11월

③ 장소 : 국회, 국방부, 회의실 등

④ 내용 : 군역산당비방지를 위한 의정감사단을 평화단체와 공동으로 조직하고, 국정 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국방위원회를 맡아 군대폭력과 국방개혁과제 추진여부 공개, 무기비리 등 국방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모니터를 통한 국방행정 및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점검을 시도하였다.

## 3. 평가

### (1) 성과

①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라는 사업방향의 채택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적절하고, 또 평화여성운동의 중장기 전망에 비춰 볼 때 사업방향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의 사업방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② 본 회 사업방향에 따라 실행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일정 정도 적절하게 실행되었다.

### (2) 과제

① 사업이 너무 막연하여 평화여성회 운동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사업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본회 역량에 맞게 적절하게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에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선전, 동원 방식의 개발이 요청된다.

### III. 1999년도 각 위원회 사업평가

#### 1. 정책기획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최만자
- 위 원 :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장남익, 조영희, 윤정숙, 음미향, 김숙임
- 담당국장 : 김정수

##### (2) 사업목표

- ①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
- ② 여성평화운동의 수렴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③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 (3) 사업내용

###### 1) 회의

###### ① 제1차 회의

- 일시 : 1999년 4월 23일(금)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최만자, 장남익, 김윤옥, 윤정숙, 정현백, 김숙임, 김영리
- 안건 : 1999년 정책기획위원회 전체 사업계획 검토, 여성평화운동 확산의 건 논의, 일제 신가이드라인 반대 프로그램 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논의, 탈북여성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방향 논의, 평화교육 심포지엄 내용 검토

###### ② 제2차 회의

- 일시 : 1999년 5월 27일(목) 오후 4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조영희, 음미향, 윤정숙, 김숙임, 김정수
- 안건 : WILPF 한국지부에 대한 보고와 논의, 의식생활개혁여성협의회 참여문제, ASEM/ 10월 서울NGO 대회 참여문제,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확산, 현 정부 통일외교군사부문 정책평가에 대한 논의(통일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발표,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표) 등

③ 제3차 회의

- 일시 : 1999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참석 : 김은옥, 이현숙, 정현백, 최만자, 장남식, 조영희, 윤미량, 김숙임, 김정수, 안수경
- 안건 : 2000년을 위한 정책협의회 준비의 건, 평화문화의 해 사업 방향 논의, 정책기획위원회 하반기 사업논의(여성평화운동정립을 위한 핵심, 현 정부 통일·외교·군사부분 정책에 대한 제언 활동, 소식지(1999년 가을호) 발행을 위한 논의, 서울 NGO 대회

④ 제4차 회의

- 일시 : 1999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 최만자, 정현백, 장남식, 김숙임, 김정수
- 안건 : 1999년도 사업평가, 2000년도 사업계획, 정책기획위원회 조직편성논의의 건

2) 1999년 정책협의회(제4차)

- ① 일시 : 1999년 10월 30일 (토)
- ② 장소 : 여진도회관 5층 회의실
- ③ 참석 : 이우경, 김은옥, 이현숙, 정현백, 최만자, 이문수, 고은실, 김숙임, 김정수, 안수경
- ④ 진행 : 최만자(정책기획위원장)
- ⑤ 내용 : ㉠ 평화여성회의 평화철학 (김은옥)  
 ㉡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의 방향 (정현백)  
 ㉢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 (이현숙)  
 ㉣ 평화여성회 infra구축을 위한 제안 (김숙임)  
 ㉤ 평화여성회의 환경(SWOT)분석 (안수경)

⑥ 토론내용 :

㉠ 평화여성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전문화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평화교육의 전문화와 대중화, 평화군축운동의 전문화, 남북여성교류를 준비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토론을 통해서 평화여성회의 전문성에 기반한 대중성 확보를 모색한다는 운동방향 수립과, 전문화 영역으로 평화교육, 특화영역으로 남북여성프로그램, 현대영역으로 평화군축운동을 전개할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남북여성교류는 평화여성회의 기조 가운데 하나로 이를 준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기로 하였다.

㉢ 2000년대 사업 기조는 평화공존의 남북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로 정하기로 하였다.

② 정책협의회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전문화 영역,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여 평화여성회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겨졌다.

### 3) 탈북여성 정책토론회

#### ① 취지

평화여성회가 그 동안 진행해오던 '진달래·무궁화'(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를 통해서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평화여성회 차원에서도 일례 대화모임에서 질적으로 발전시켜 탈북여성의 적응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장단기적 정책의 개발 뿐만 아니라, 탈북여성프로그램을 통해서 평화여성회가 남북의 통일(통합)을 준비하는 공존의 사회에 대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평화여성회가 향후 이런 방향에서 탈북여성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② 일시: 1999년 7월 16일 (금) 오후 2-5시

③ 장소: 여성평화의 집 1층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④ 참석: 이우경, 최만자, 이정자, 정현희, 윤명선, 조영희, 강남식, 김숙일, 안수경, 김경수, 김연수

⑤ 사회: 최만자 정책기획위원장

⑥ 내용: 1) 탈북여성 정책정립을 위한 평가와 토론,

2) 탈북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

⑦ 발표: 김숙일 사무총장

#### ⑧ 토론내용

① 탈북여성센터는 (가칭) <북한여성센터>라 칭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작성하기로 한다.

② 평화여성회의 '탈북여성' 사업은 남한한 통합사회를 대비하는 사례로서 평화여성회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③ 평화여성회에 소속된 진달래 회원들에 대한 사회 적응 훈련,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정부가 탈북여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4) 여성평화운동은 정립을 위한 핵심

#### ① 취지

새로운 2,000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평화운동의 흐름은 20세기에 인류가 헤쳐나갈 수 있는 전쟁과 원인 근절과 불평화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철저한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종전의 핵무기반대운동을 포함하면서도 보다 폭넓게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간·국가간 무기거래의 감시와 반대운동, 소형무기·대인자의 반대운동, 평화의 문화 정착 등 보다 보편적인 관심 아래 전문적인 주제로 평화운동의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여성평화주의의 시각을 반영하는 여성평화운동의 전략을 수립·이행할 때 노년, 어린이 등 냉전 이후의 갈등과 긴장관계 가장 큰 희생자로 대두되고 있는 시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기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작업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관점과 내용, 방법론을 점검하고, 평화운동의 여성지도력 확대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목표

- ① 세계(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현황 점검
- ② 여성평화운동의 다양한 방안과 전략개발
- ③ 평화문제 관련자료와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①일시 : 1999년 10월 - 2000년 2월 (월 1회, 저녁 7시)

②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강당

③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④내용과 날짜 :

	일시	주제	발제자
1	1999년 10월 27일(수)	평화연구의 흐름과 과제	김윤옥(공동대표)
2	11월 36일(금)	세계의 세계화와 군사적 자본주의: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이현숙(공동대표)
3	12월 22일(수)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새로운 안보개념의 발전과 여성평화운동의 전략	김경란(정책국장)
4	2000년 1월 28일(금)	평화교육·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전략	장순원(교육위원, 한신대 기독교교육)
5	2월 25일(금)	한국평화운동의 고찰, 여성적 평화운동의 대안	정현혜(공동대표, 성균관대 역사학과)

## (4) 평가

- 1) 정책위원회의 활동이 평화여성회의 내부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견토와 정책제시 활동의 측면에서 미약했다.
- 2) 남북여성정책토론회: 남북여성에 관한 상황과약과 정보를 제공하고 큰 틀의 방

항과 정칙을 수립하는 데 적절했고 의미가 있었다.

4) 여성평화운동론 정립을 위한 핵심: 목적을 달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용의 결과를 정립하여 여성평화운동론에 대한 이론정립과 실천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 또한 프로그램이 월1회여서 시간차이가 너무 크므로 연속성 있는 참석이 어렵다.

5) 2000년을 위한 정책협의회: 평화여성회의 특성화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보다는 정책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 이를 수렴하지 못했다.

## (5) 과제

1)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제시의 한 측면으로 평화여성회가 평화교육을 전문화하려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일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남북여성프로그램은 향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기반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화여성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다양성과 회원활동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적절하게 조정, 이를 평화여성회의 장단기 실천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사업을 보다 강화하도록 한다.

## 2. 평화통일사업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고은실
- 위 원 : 윤수경, 고은광순, 태옥영, 오혜경, 이금순, 이순례, 이육근, 장도송
- 담당국장 : 안수경

### (2) 사업목표

- ①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② 남북한의 통합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 (3) 사업내용

#### 1) 회의

- ① 제1차 회의
  - 일시 : 1999년 4월 1일(목) 오후 6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고은실, 윤수경, 장도송, 이금순, 배옥영, 김숙인, 안수경.
- 안건 : 1999년도 사업계획 공유, 군속 활동을 위한 의정 감시단 확장의 건, 탈북여성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건

#### ㉒ 제2차 회의

- 일시 : 1999년 5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고은실, 장도송, 이금순, 배옥영, 김숙인, 안수경.
- 안건 : 군속활동을 위한 의정감시단에 관한 건, 탈북여성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건

#### ㉓ 제3차 회의

- 일시 : 1999년 6월 17일(목) 오후 5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고은실, 배옥영, 김숙인, 안수경.
- 안건 : 군속 활동을 위한 의정 감시단에 관한 건,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통한 시민의식개혁 캠페인에 관한 건

#### ㉔ 제4차 회의

- 일시 : 1999년 7월 15일(목) 오후 5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고은실, 배옥영, 김숙인, 안수경.
- 안건 : 군속 활동을 위한 의정 감시단에 관한 건,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통한 시민의식개혁 캠페인에 관한 건

#### ㉕ 제5차 회의

- 일시 : 1999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고은실, 배옥영, 김숙인, 안수경.
- 안건 : 1999년도 사업평가, 2000년 사업계획

## 2)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가.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 ㉑ 사업취지 및 목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되었고, 새로운 전년을 우리는 1년 앞두고 있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지구화 시대의 민족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의 준비를 위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 동안 분단상황에서의 민족갈등과 분쟁, 그리고 성장세일주의로 인해 지나친 경쟁의식과 이기적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한 관계를 맺고 살

아가고 있다.

남북한 통합사회를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서 먼저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식, 책임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의식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회는

① 획일적인 사회문화에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의식

②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의소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는 민족통일시대에 남한사회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 지구화 시대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④ 사업내용

### ① 평화상징문자 표어 공모

- 기간 : 1999년 6월 말 - 7월 23일
- 공모작품 : 상징 15작품/ 표어 - 158개 작품

### ② 현상공모 심사

- 일시 : 1999.7.28.(수) 오후 3시-5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부커
- 심사위원 : 이현숙, 김숙임, 안수경, 이상원(디자인 KGA 대표)
- 심사결과 : 평화상징 - 2점(가짜), 평화표어 - 2점(가짜)
- 심사평가 선정기준  
① 평화의 구체적인 덕목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  
② 여러 작품이 경합을 벌였으나 내용이 보다 적극적인 뜻을 지닌 작품을 선정  
③ 평화의 실현의지가 잘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

### ③ 평화상징물 제작

- 목걸이·브로치 각 1,000개
- 냉장고 Tag: 2,000개
- 휴대폰 Tag: 2,000개
- 스티커: 2,000개
- 평화상징 조끼: 50개
- 프랑카드 2개 (문화 것방 포함)
-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생활지침” 진단 4,000부

### ④ 제1차 평화문화 캠페인

- 일시 : 1995.8.15.(일) 오후 2-4시
- 장소 : 갈현초등학교
- 내용 : 무기장난감을 요요! 평화스티커 부착!로 바꿔주기



평화서명 받기(약 500명)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생활지침 전달비교, 평화상징 넣음요tag 배포

- 본회 참석자 : 고은실,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김영희, 김연수, 박부여성의 10여명
- 참여인원 : 약 3,300여명

#### ⑤제2차 평화문화 캠페인

- 일시 : 1999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4시까지
- 장소 : 서울NGO대회장 부스
- 내용 :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생활지침 전달, 명장고 지식, 캠페인 책 등 배포, 평화문화 실현과 비폭력을 위한 약속 서명받기, 기타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소개
- 본회 참석자 : 김정수, 안수경
- 참여인원 : 700여명

#### ⑥제3차 평화 캠페인

- 일시 : 1999년 10월 19일(화) 저녁
- 장소 : 금강산 전당
- 내용 :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생활지침 전달, 명장고 지식, 캠페인 책 등 배포, 평화문화 실현과 비폭력을 위한 약속 서명받기, 기타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소개
- 본회 참석자 : 이우진, 윤영진, 이현숙, 윤덕희, 박영정, 장순훈, 김순영, 전현혜 외 회원들
- 참여인원 : 금강산 전당적 500여명

### 3) 평화군축을 위한 활동

#### 가. 군축의정감시 활동을 위한 확산

##### ㉠ 사업위지 및 목적

본회는 군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지난해에 4번에 걸쳐서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확산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서 평화군축운동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평화군축운동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본회는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군축의정감시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축정책의 실현을 유도해내고, 방위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비로 확충해 주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회는 “군축의정 감시단 확산을 실시하여 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현실적인 접근 방법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 ㉑ 목표

- ① 의정감시단 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수집
- ② 의정감시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 개발
- ③ 군속의정감시를 위한 전문성 강화
- ④ 평화군속운동전개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 ㉒ 사업내용

### ① 제1차 군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학습 및 간담회

- 일시 : 1999년 5월 30일(목) 오후 6:30-9시
- 장소 : 여성교회 예배실
- 참석자 : 평화여성회 평화통일위원, 사무국, 참여연대, 민족회의, (정실련)
- 주제 : 의정감시활동의 과제와 방향
- 내용 : 사회: 고은실(평통사업위 위원장)

①발제: 김석수(정치개혁시민연대사무처장: "의정감시활동의 과제"

②간담회 결과 : "군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의정감시단" 결성

-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참여연대, 민족회의, 정실련 통일협회
- 분회참석자 : 고은실, 태옥명,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 ② 제2차 군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학습 및 간담회

- 일시 : 6월 17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본회 회의실
- 내용 : 국방위 의정감시활동의 과제와 방향
- 발제:김종대(입북진 의원 보좌관)
- 진행:이태호(참여연대 시민감시막 국장)

-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참여연대, 민족회의, 정실련 통일협회, 평화인권연대, 여성연합
- 분회참석 : 고은실, 고은광순, 태옥명,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 ③ 제3차 군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학습

- 일시 : 1999.7.15(목) 오후 6:30
-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군예산 낭비방지를 위한 군속의정감시 전략
- 발제: 안수경(평화여성회), 이태호(참여연대)
- 진행: 고은실(위원장)

- 참석 : 평화여성회, 참여연대, 민족회의, 여성연합, 평화인권연대
- 분회참석 : 고은실, 태옥명, 김숙임, 안수경, 김정수

### ④ 제4차 군예산 낭비방지를 위한 군속의정감시단 학습

- 일시 : 1999년 8월 17일(화) 오후 7시
-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 주제 : 국경감사 국방위감시 의제개발
- 참가 : 평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여성연합
- 본회참석 : 고은실, 김숙임, 안수경

#### ⑤ 제5차 군예산 낭비방지를 위한 군속의경감사단 착상

- 일시 : 1999. 8.30(목) 오후 1~4시
- 장소 : 여성평화의집 지하강당
- 내용 : 국경감사 결의서 초안 검토
- 참가 : 평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여성연합
- 본회참석 : 고은실, 김숙임, 안수경

#### ⑥ 제6차 군예산 낭비방지를 위한 군속의경감사단 착상

- 일시:1999년 9월 2일(목) 오후1시-3시
- 장소:여성평화의집 1층 회의실
- 내용:국경감사 결의서 검토
- 참석:김숙임, 안수경

### 나. 임미 신가이드라인 반대 활동

#### ㉔ 사업원칙 및 목적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안보포괄조약의 구체적인 운용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관련법안(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97년 9월 확정된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유사'사태보다는 '일본주변유사' 사태 대응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더군 후방지원 명목으로 활동영역을 일본 바깥으로 무제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관련법안이며, 그것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물품통역상호제공협정(ACSA)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한 주변사태법안은 일본이 미군에게 보급, 수송, 수리, 의료, 학력 등을 지원하고 조난미군 수색구조, 최극신박 점사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공항과 항만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체도 협력을 하도록 규정해 '미군 전쟁수행협력'을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임미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할 뿐만아니라 알고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저해할 임미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㉕ 사업내용

##### ① 일본 군사대국화와 임미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할 위한 9계단체 실무자 회의

- 일시 : 1999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자 :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계혁국민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 내용 : 일미신가이드라인 내용 공유, 성명서 검토, 집회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 서명운동 기획

②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집회 개최 (국제법적위협 공동주관)

- 일시 : 1999년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종로 3가 탑골공원
- 참석자 : 8개 단체 실무자 및 회원 50명
- 내용 : \*사회 : 노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부장)  
\*개회사 : 이창복 (민족회의 상임의장)  
\*연설 1 : 김윤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연대사 :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연설 2 : 이장희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본회 참석자 : 고은실, 김윤옥, 이현숙, 노길원, 김숙임, 안수경, 김영리

③ 일본군사대국화와 일미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일본에 서명서 전달

- 기간 : 1999년 3월 19일~4월 12일까지
- 서명서 1차 전달 : 오부치 수상과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아마카키에게 한국지역명 인사 112명의 서명명단과 시민단체의 입장 및 819명의 서명서를 4월 14일 일본에 발송
- 서명서 2차 전달 : 일본의 각 정당 대표와 일미방위협력지침에 관한 특별위원회 이사와 위원40명에게 112명의 서명 명단과 시민단체의 입장 및 서명자 819명의 서명서 발송

④ 일미 신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기자회견

- 일시 : 1999년 4월 15일 (목) 오전 11시~12시
- 장소 : 철학카페 [느리나무]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실련통일협회, 종교인협의회, 민주계혁국민연합, 민족회의, 참여연대, 교회여성연합회, KNCC, 한국여성단체연합 (9개단체)
- 내용 : 사회 : 정현백 (공동대표)  
인사말 : 이창복(민족회의 상임의장)  
연설 : 이장희(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경과보고 및 일미방위협력지침 경과설명 : 김윤옥(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명서 전달방식 및 후속활동발표 : 정진우(종교인협의회)  
· 본회 참석자 : 김윤옥, 정현백, 김숙임, 안수경, 김영리, 김경수, 김경화

⑤ **일대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논평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전달**

- 일시 : 1999년 5월 3일(월)
- 보도요청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실
- 참석자 :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합의회,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참여연대, 가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 인권연합회, 200기 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8개단체

**다.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 활동**

①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 국감방청을 위한 활동일지**

- 참가단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참여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상 6개 단체)

- 1999. 5. 20 군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 출범
  - 국방위 의정감시활동의 과제와 방향 모색, 국방위 중립 모니터 과제 개발, 자료 요청과 질의서 작성 등을 위한 5차에 걸친 협상
- 1999. 8. 8 국감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과 함께 국방위 모니터단으로 국감준비 활동 시작
- 1999. 8. 17 국감감사모니터시민연대 선정 국방위원회 국경감사 중립 모니터 과제 국방위원회 소속 각 위원에게 전달
- 1999. 9. 20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 조사관실과 한영수 국방위원장실 방문-비서관 면담 방청허락 요청- 국방부 자체가 민간인 통제시설이며, 국감 장에 나오는 장성급 인사 자체가 보안사항이므로 국가안보기밀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방청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1999. 9. 22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경감사 방청 허락 신청서 접수
- 1999. 9. 28 한영수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국경감사 방청불허 통보
  - 방청불허 이유: 군사기밀에 대한 시설보호가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공개회피가 많다는 것과 국가기밀 사항의 일반공개가 불가하다는 것
- 1999. 9. 29 한영수 위원장이 사정에 국방부와 모니터단의 방청에 대한 사절협의 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영수 국방위원장에게 "국방위 국경감사 방청 불허에 대한 항의 서한" 전달과 보라관 면담, 그 결과 한영수 위원장의 모니터 단의 기자회견까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국방부와 논의했으나 국방부 장관이 방청 불허.
- 1999. 9. 29 국방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방청불허 공식 입장 발표
- 1999. 9. 29 국방위 국경감사 방청을 위한 국방부 장관 면담 신청-이해 대한 화신 없음
- 1999. 9. 29 국방부 청사 출입규정(방문 목적과 출입자지 신원확인)에 따른 국방부 출입을 위한 서류 접수
- 1999. 9. 30 국방부 장관 면담을 위한 국방부 방문, 국감장에 나갔다는 이유로 면담 불가
  - 국방부 출입을 위한 서류 재 접수를 시도했으나 한영수 위원장의 직인을 요구해서 접수 거절당함.

- 1999. 9. 30 한영수 위원장 비서관을 통해 국방부 출입 신청서에 직인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 1999. 9. 30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위 국감 모니터 방청불허에 대한 공식입장 서면 요청
- 1999. 9. 30 국방위원회 3당 간사 처천에게 국감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 서한 전달 항의 서한에 대한 입장 서면 요청
- 1999. 10. 1 국방위원회 3당 간사 비서관에게 항의서한에 대한 입장 서면 요청- 회신 없음
- 1999. 10. 4 국방부 앞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 집회

### ㉔ 국방위원회 모니터단 활동을 위한 의정감시단 회의

#### ① 제1차 회의

- 일시 : 1999년 9월8일(목) 오후1시~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식당
- 내용 : 국감모니터 발대식 및 기자회견 후 국정감사 향후 일정 검토와 방향 논의
- 참석 : 김숙임, 안수경

#### ② 제2차 회의

- 일시 : 1999년 9월29일(수) 오후10시~11시
- 장소 : 국방부 앞 찾집
- 내용 : 한영수 위원장에게 항의서 전달 후 향후 대책 논의
- 참석 : 김숙임, 안수경, 김연수

#### ③ 제3차 회의

- 일시 : 1999년 9월29일(목) 오전9시30시~11시
- 장소 : 국방부 민원실
- 내용 : 국방부 장관 면담신청과 출입허가서 접수후 방청불허에 대한 향후 대책 논의
- 참석:안수경

#### ④ 제4차 회의 및 KBS 인터뷰

- 일시 : 1999년 10월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여성평화의 길 1층 회의실
- 내용 : 국정감사 결의서 분석과 방청불허에 대한 대책논의
- 참석 : 김숙임, 안수경

#### ⑤ 국방위 모니터단 KBS "시청자 칼럼"출연

- 일시 : 1999년 10월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내용 :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방청불허에 대한 입장,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
- 출연 : 안수경

#### ⑥ 제11차 회의

- 일시:1999년 10월13일(수) 1시
- 장소:명동일국수

- 내용: 평등 집회 후 국정감사 질의서와 속기록 분석에 대한 논의
- 참석: 안수경, 김연수

#### ⑦ 기무사 병무비리 관련 철저한 수사 촉구 논쟁

- 일시: 1999년 10월 15일(금) 오후
- 보도요청: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실
- 참가단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참여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상 6개 단체)

### ⑧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모니터 활동에 대한 총평

#### 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의 발원요청에 대해 9월 29일 한영수 국방위원장은 3당 간사회의도 거치지 않고 “군사기밀에 대한 사실보화가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공개회피가 많아 방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청불허를 공식 통보해 왔다.

국방위 모니터단은 항의서한 전달, 항의집회 등을 통해 한영수 위원장으로부터 “모니터단의 기자회견까지의 출입을 한성한다”는 제안을 절충안을 제안 받았으나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감 방청요청의 국방부 출입 불허”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방위 모니터단은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시민연대의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방청특례와 출입자의 신원이 확실하면 누구나 국방부 출입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청사 출입규정에 따라 국방부 출입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한영수 위원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했고 한영수 위원장 비서관은 “우리는 기자회견까지의 출입을 허용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는 이유로 직인을 거부했다. 국방위 모니터단은 국방위원회 3당 간사에게 “국감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역시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모니터단의 방청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방위원회 모니터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영수 위원장이 뒤늦게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구두로 표시했다 해서 면회부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영수 위원장이 진정으로 모니터단의 국감방청을 원했다면 국감 전에 3당 간사회의를 소집하여 모니터단의 공개회의 방청허락 여부를 논의했어야 했고, 국방부 출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어야 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한영수 위원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국감모니터단의 의정감시를 원천봉쇄하고 전행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몇 몇 의원들 제외하고는 외국 출장과 지역구 나들이 등 여러 이유로 불 출석하는 사례가 잦아 국감을 진행하기조차 힘든 일도 있었다. 국방위 국정감사는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제후성 역할 되어 시민의 알권리와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가만 할 것인가? 국방전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 ② 성과 및 과제

국방위원회가 방청이 불허되었지만 40개 단체가 연합한 국감모니터시민연대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상임위원회의 관련 영역과 같이 국방에 관련된 영역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를 초월한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 가운데 하나로써 당연히 시민의 감시를 받고, 아주 특별한 기밀영역이 아닌 부분은 국민에게 관련 사업의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 확산과 공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올해의 경험은 내년 국방영역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영역의 정보비공개, 군사기밀이라는 완고한 국방위원회 국회의원과 국방부의 논리와 자세는 평화운동단체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사고와 폐쇄적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법적,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국방부에 집권된 민간인관계법령 등에 관한 분석과 국방부와 국방위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향후 계획

위 모니터단은 이후 속기록과 서면자료를 토대로 국방위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말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방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상위 및 하위위원을 선정할 수 없고, 국방위 모니터단이 제출했던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안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 (4) 평가

### 가. 성과

①일이 신가이드라인 반대 활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규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모임, 헤이그 평화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국제 NGO연대로 국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국내 NGO와의 연대 틀을 다지기도 했다. 특별히 본회가 이 연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②군축을 위한 의정감시 활동에서 국감모니터단 활동은 국정감사를 현장을 직접 모니터 하지는 못했지만 국회감사의 훈련 계기가 되었으며, 영역시되어 왔던 국방위를 감시의 영역으로 이끌어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국감 국방위원회 간사단체 활동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위상을 높였으며, 본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2000년 국감의 효과적인 집금을 위한 의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③8.15를 기점으로 시작된 비폭력 평화공론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캠페인은 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현할 앞서서 평화문화에 대한 이슈를 환기시켰고,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화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평화상징 현상 공모와 서명을 효과적으로 진행했으며, 평화협의 8.15 거대손잡기, 금강산 통일기행,



서울NGO대회 등을 잘 활용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이번 평화문화캠페인은 본회의 사업 중 가장 대중지향적인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회원의 참여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나. 과제

①일미 신카이드라인 반대 활동은 NGO와 연대차원에 머물렀고, 국내여론을 성숙시키지 못했으며, 이를 국제화시켜내지도 못했다. 또한 정부측과의 토론이나 일문 일의 방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연대활동을 형성해 지속적인 대응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지 못했다.

②국감감도모니터단 활동에서 한지는 회원의 참여를 시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참여가 저조하였고, 회원의 역량을 키워내는 계기로 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000년 국방위 모니터 활동은 회원들을 폭리하여 군측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③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여성대중과 청소년에게 보다 쉽고 접근 가능한 평화이슈를 발굴하여 평화문화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 할 것이다. 아울러 대 언론 홍보에 좀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 3. 평화교육위원회

####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은선
- 위 원 : 박애경, 최영숙, 문화련, 강선미, 강순원, 백미순, 손덕수
- 담당국장 : 안수경

#### (2)사업목표

- ①평화외식과 통일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다양한 활동
- ②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력 개발
- ③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

#### (3)사업내용

##### 1) 회의

###### ①제1차 회의

- 일시 : 1999년 3월 11일(목) 오후6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박애경, 최영숙, 김숙인, 안수경
- 내용 : 평화교육심포지움에 관한 건, 대중적 여성평화교육에 관한 건, 여성평화운동 지도력개발을 위한 평화교육에 관한 건, 제4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에 관한 건

#### ② 제2차 회의

- 일시 : 1999년 4월 18일(목) 오후6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은선, 최영숙, 문화영, 김숙인, 안수경
- 내용 : 1999년도 사업계획 공유의 건, 평화교육 심포지움 기획안 검토의 건, 대중적 여성평화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여성평화운동 지도력개발을 위한 평화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 ③ 제3차 회의

- 일시 : 1999년 5월 10일(일) 오후6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최영숙, 문화영, 김숙인, 박이순, 안수경
- 내용 :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평가의 건, 여성평화운동 지도력개발을 위한 평화교육 기획안 최종 검토의 건, 제4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프로그램 논의의 건

#### ④ 제4차 회의

- 일시 : 1999년 6월 7일(월) 오후6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은선, 박애경, 최영숙, 문화영, 김숙인, 안수경
- 내용 :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에 관한 건, 제4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평가의 건

#### ⑤ 제5차 회의

- 일시 : 1999년 9월 6일(월) 오후7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은선, 박애경, 최영숙, 안수경
- 내용 : 제1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평가의 건, 제2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에 관한 건

#### ⑥ 제6차 회의

- 일시 : 1999년 9월 29일(수) 오후6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박애경, 최영숙, 김숙인, 안수경
- 내용 : 제2기 여성평화운동 지도력 개발을 위한 평화교육에 관한 건

#### ⑦ 제7차 회의

- 일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후6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은선, 박익경, 최영숙, 김숙연, 안수경
- 내용 : 1999년도 사업평가의 건, 2000년 사업계획의 건, 위원보강의 건

## 2)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 ① 사업위지 및 목적

①본회가 평화교육을 실시하기 전,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의 필요성이 요청되다.

②통일 이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로서 평화교육은 절실하며, 평화교육은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에 과제를 담느니 만큼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시키는 여운이 필요하다.

③통일교육지원부와 관련, 평화교육의 여지를 마련하고, 평화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② 목표

- ①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여론화한다.
- ②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살펴본다.
- ③ 본회의 평화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방향을 모색한다.
- ④ 심포지움을 통하여 평화교육 관련자와 전문가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사업내용

- 주제 :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 일시 : 1999년 4월 28일 (수) 오후3-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70여명
- 내용 :

- ① 사 회 : 이은선(평화교육위원장)
- ② 기조발제 : 고병헌(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 ③ 포 롬 : 김윤옥(공동대표: 평화교육과 여성)
  - 윤병선(재정조직위원회 위원장: 여성평화교육의 방법과 프로그램 제시)
  - 정용민(천호중학교 교사: 평화교육의 사례분석과 평화교육방법론 개발)
  - 강순원(한신대 기독교학과 교수: 평화교육의 외국사례와 국내평화교육에의 적용)
  - 윤미량(통일부정책기획과 서기관: 평화통일교육의 제도적 정착방안)

### 3) 제4차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 ① 사업위지 및 목적

-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한다.
- ㉡평화기행을 통해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회원확보의 기회로 삼는다.

#### ② 사업내용

- 일시 : 1999년 6월 5일 (토) 당일코스
- 장소 :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금강산 파크 온천장
- 참석인원 : 84명
- 내 용 : 분단현장 견학과 통일노래 함께 부르기 등

### 4)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 ① 사업위지 및 목적

- ㉠새로운 전환기에 필요한 평화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지도역을 갖춘다.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반 평화적인 북핵구조의 현실을 변화시켜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훈련 양성한다.
- ㉢여성 평화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평화의식 확산과 다 단계의 평화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도모한다.

#### ② 접근방식

- ㉠변화된 세계상황 속에서 평화운동의 정보 교류에 중점을 둔다.
- ㉡평화운동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평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망라한다.
- ㉣강의, 토론, 시청각 관련, 기타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교육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학습 중심의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참여와 자기재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사업내용

##### ㉤ 제1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 일시 : 1999년 6월 7일(월)부터 8월 9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7시- 9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강당

· 내용 : 진단 참고

㉔ 제1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수요석

- 일시 : 1999년 8월 9일(월) 9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강당
- 참석인원 : 38(사무국 5명 포함)
- 수료자 : 15명(회원 포함)
- 회원가입자 : 8명

㉕ 제1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 일시 : 1999년 11월 4일(목) 오후 2시~ 6일(금) 오후 5시까지
- 장소 : 송실대 사회봉사관 대동강
- 내용 : (진단참조)

㉖ 제2기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수요석

- 일시 : 1999년 11월 6일(토)14시
- 장소 : 송실대 사회봉사관 대동강
- 참석인원 : 20명(사무국 4명 포함)
- 수료자 : 10명(회원 포함)
- 회원가입자 : 5명

#### (4) 사업평가

##### 가. 성과

① 평화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는 평화교육 시행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고, 평화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②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은 미약하나마 회원을 확대하고 본회의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고, 회원의 권속도모와 아울러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분단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③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은 평화교육이 무제한 현실에서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평화개념을 정립케 했으며, 평화운동의 다양한 영역을 결합케 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중요성과 방향을 인식케 했다. 이를 통해서 여성평화운동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회원13명가입).

##### 나. 과제

①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했고, 주제 자체가 너무 원본적이었으며, 토론의 내용도 주제와 맞지 않아 전체 내용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다. 더욱이 여성평화교육의 방법론 개발을 위한 특화된 형태의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평화교육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일반대중에게 홍보하여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공유케하고 이를 계기로 평화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②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에 전문적인 안내자가 동반하지 못한 관계로 자칫 분단현장 체험이 아닌 견학에 그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가졌어왔다. 이를 계기로 평화기행에는 반드시 분단현실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전문가가 동행해야 됨을 인식했다. 아울러 평화기행의 폭을 분단지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평화개념을 확장시켜 평화의 시각을 좀더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1,2기로 나누어 진행된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은 너무나 광범위한 각각의 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 인해 주제가 전반적으로 연관성 있게 배치되지 못했고,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평화교육의 내용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평화교육의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해야 할 것이며 대상도 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4. 국제협력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위원장 : 이현숙
- 위 원 : 권혜순, 김매연, 노길원, 정숙자, 홍승희
- 담당국장 : 김정수

##### (2) 사업목표

- ①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 ②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 ③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조직과 역량강화

##### (3) 사업내용

###### 1) 회의

###### ① 1차 회의

- 일시 : 3월 29일 (월) 오후 6시
- 장소 : 본 회 사무실

- 참석: 이현숙, 권혜순, 김숙인, 김엘리
- 안건: 1999년 사업계획 결집, 1999년 영문소식지 편집을 검토,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의 건  
[참여자, 실무자 과건, 부스설치문지, Draft Agenda 검토, 한국 NGO 사전 모임  
문지], 일미 신가이드라인 후속프로그램의 건

#### ② 제2차 국제협력위원회

- 일시: 1999년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이현숙, 정숙자, 노길림, 김배연, 홍승희, 김경수
- 안건: 갈등해소와 관용 확산 참가자 추천, 서울 NGO 참석의 건, 영문소식지 논의,  
국제협력위 위원보장의 건

### 2) IAEA와 WHO협정 개정 원천서에 관한 서명운동

- 기간: 1999년 3월 23일 - 3월 27일
- 서명활동 요청자: WILPF
- 서명협조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천안여성의 전화, 충남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 성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 전화, 광교육학부모회, 서울여성  
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알하는 여성의 집, 울산여성의 전화, 대구여성의 전화, 광  
주전남여성단체연합, 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  
우회, 수원여성회, 서울여성의 전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연구소,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대국제지역원, 참여연대, 경실련, 민족회의 등 총 508명

### 3) IFOR 헤이그 평화회의 여성준비회의 참석

- 일시: 1999. 5. 7-10
- 장소: 네델란드 De Zandhoeven
- 주제: '여성이 평화의 길을 열어 간다'
- 목적:
  - ① 평화영역에서의 여성의 지도력을 긍정하고 갈등해결에 여성의 관점  
을 주류화 하기 위함.
  - ② 헤이그평화회의 동안 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확보하기 위함
  - ③ 각 대륙 여성 대표 10명을 초청하여 IFOR의 여성 Think Tank로 구성,  
준비회의회를 가지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내용을 구체적인 행동강령과 권  
고안을 만들어 내기 위함
- 참석: 이현숙 국제협력위원장
- 결과: '비폭력과 평화문화를 위한 여성들의 지구의 행동'이란 이름의 행동강  
령 생산.

### 4) 헤이그 평화회의의 참석

- 일시: 1999년 5월 11-15일

-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 본회 참석자 : 이현숙 공동대표, 김숙임 사무총장, 김열의 전정부국장, 장희원,
- 참가단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족회의 참여연대, 정태협, 평화인권연대, 기  
 윤실, 주한미군법외근로 운동본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참가단 행사내용
  - ①일미가이드라인 반대운동 시위 2회
  - ②한국대표단 부스설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 ③여성평화지도력 향상개회, 각종포럼 참석, 자료와 정보 수집
- 기타
  - ①헤이그 평화회의 참석을 위한 한국 참가 단체 실무자 모임(1999년 4월 6일)
  - ②이현숙 공동대표 "여성이 평화를 이룬다"라는 주제로 IFOR 주관 프  
 로그램에서 발제

**5)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활동 전개(대동사업회 사업평가 참고)**

· 개요: 일본-미국의 새로운 방위협력지침(뉴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하여 뉴가이드  
 라인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 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축,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평화운동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연  
 대하여 일련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평화여성회는 평화사업위와 국제협력위원회의 공동  
 사업으로 전개하였다.

**6) 영문소식지 발행**

- 일시: 1999년 5월 중순
- 부수: 500매

**7)\*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심포지움 개최**

- 취지 : 평화여성회는 1999년도 초반부터 일미신방위협력지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 거리행진, 기자회견과 설명회, 반대  
 서명작업과 일본수상, 국회에 발송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5.2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일미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는 심포지움을 기획하게 되었다.

- 일시 : 1999년 5월 25일(화) 오후 3-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43명
- 주제 :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 내용 : 사회: 이현숙(공동대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①강연1: 피영희(현양대학교 명예교수: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 ②강연2: 시게토 미야코(전 일본부인회 부회장: 일본NGO의 입장에서)



- 프와 제이코(일본부인회 회장: 일본시민운동의 시민불복종운동)
- 홍도문1: 이삼성(가톨릭대학교 교수: 미국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군사화)
- 홍도문2: 배정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군사: 역할중대와 한반도)
- 홍도문3: 김윤옥(공동대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일각에서 본 NGL)

· 기타 : ① 자료집 발행

② 5.24 행사자료는 IFOR과 IPB의 공동 자료집에 수록될 예정임

#### 8)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운동가와의 간담회

- 일시 : 6월 25일(금) 오후 2-4시
- 장소 : 평화여성회 사무실
- 내용 :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군사전략과 안보문제
- 참석자 : John Feffer(AFSC 환경사무소), Joseph Gerson (AFSC 뉴잉글랜드 지부), 이현숙, 김숙임, 김정수

#### 9) 2000년 평화문화의 해,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서명 운동

· 내용 : 2000은 유엔이 선언한 "세계문화의 해"이다. 또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을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으로 지정되어, 지난 3월 4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기초한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세계 평화문화의 해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 사람들의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명단을 2000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진행경과

- ① 8.15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캠페인 행사에서 서명사업 (약 500여명 이상 서명)
- ② 10월 서울 NGO 대회장(올림픽파크 컨벤션경기장)에서 서명사업
- ③ 인화협 여성위원회의 주관 금강산 기행시 금강호 천상에서 서명사업
- ④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12월 11일(토) 참여연대 느티나무거제)에서 서명사업

#### 11) AFSC 후원 갈등해소 워크숍 주최

- 일시 : 1999.9.3(금)~4(토)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 내용 : ①갈등해소와 관용에 관한 방법론과 적용, ②이덕 중심의 갈등해결, ③중재훈련, ④적극적 평화 훈련
- 강사: 2명의 워크숍진행자 (Jan Jung-Min Sonoo:미국에서 판연분야 훈련)
- 공동주관단체 : AFSC,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 민족회의
- 후원 : AFSC(미국종교친우봉사회 환경사무소)

- 참석자 : 한국의 공중보건의단체에서 추천한 평화운동실무자 25명  
John Feffer (AFSC), 봉역자 1명, 워싱턴봉사자 2인 등 약 30명
- 본회 참석자 : 정현덕, 김숙일, 윤미향, 안수경, 김정수, 김연수, 김동성,
- 기타: 본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모임(6월 27일(월), 1999.8.18.(수), 1999.9.2.(목))
- 갈등해소 워킹 후속 프로그램모임(1999.10.15)
  - ① 2000년 5월 정 여성, 청년 중심의 워킹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
  - ② 한국인 전문가 양성의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AFSC, 평화여성회, 민족회의)

## 12) 관용에 관한 워킹

- 일시 : 1999년 10월 7일(금) 오후 5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내용 : 관용과 변화(Transformation)를 위한 방법론
  - 9월의 갈등해소 워킹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관용에 대한 개념, 관용이 요구되는 상황, 관용을 중심으로 한 갈등해소 방식,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상황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갈등해결은 어떻게 한 것인가 등
- 진행자 : 김용환(한남대 교수)의 AFSC의 갈등해소 워킹 전문가 2명
- 본회참석자 : 김숙일, 김정수, 김연수,

## 13) 한일 Women's Peace Line 형성을 위한 준비

- ① 일미신카이드라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김윤옥 대표가 1999년 2월 21일 일본에서 열린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회>의 뉴가이드라인 반대 집회에서 김윤옥 대표가 New Guideline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평화연대 (<가칭> Women's Peace Line)을 한-일 여성들이 결성할 것을 제안.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회>는 일본여성들의 평화네트워크, 여기에는 교동회, YWCA, 일본부인회 등이 가입되어 있다.
- ② 평화여성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21세기 여성평화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난 9월 30일 <일본부인회> 회장 쓰와 케이코씨에게 한국측 제안서 발송
- ③ 현재 이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에 대해 일본에서 논의중에 있음

## 14) 정경란 회원 WILPF 인턴쉽

- 기간 : 1999년 1월-10월
- 장소 : 스위스 제네바의 WILPF 본부
- 분야 : "군축과 경제정의"
- 보고서 : 부록자료 참고

## 15) 네팔 Girl Child Peace Camp 한국참석자 추천

- 일시 : 1999년 10월 30-11월 8일
- 장소 : 네팔의 카투만두 Bhrikuti 중학교
- 회의명칭 : Asia Girl Child Peace Camp

- 주최: 내과의 Milijuli(IFOR의 내과그룹)
- 회의 주제: "존중(Respect)"- 2000년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과 평화문화의 확산과 비폭력과 평화의 문화 10년(2001-2010)선포를 제기로 여는 평화캠프
- 소녀만을 위한 캠프를 여는 이유:
  - ①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최악의 상태다. 소녀들이 고통받는 폭력의 형태는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다.
  - ② 소녀들은 비폭력의 자원들이고 힘이다.
- 참가대상: 14-16세 소녀 30여명과 보호자(미혼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진행)
- 한국참가자: 2명의 소녀(윤세호, 이지예)와 1명의 예스코드(계단실, 본회회원)
- 회의 참가보고: 계단실 회원의 보고서가 1999년 11월 여성신문에 보도, 윤세호 학생의 보고서가 본회 소식지에 실림
- 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16)\*평화건설을 위한 여성들의 미디어 기술 사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협력활동

- 발문자: 와이오밍(University of Wyoming)대학의 간호학과와 여성학 교수
- 발문시기: 1999. 12. 13(월)-17(금)
- 발문목적: "평화건설을 위한 여성들의 미디어 기술 사용"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무역개발 지역을 포함한 7개국 순방조사)
- 프로젝트제목: "미디어 기술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평화건설(조성) 운동"
- 목적:여성들이 평화를 건설하는데 있어 다양한 미디어(인터넷, 비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대안매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구적 사례들을 문서화할 계획. 특별히 광범한 평화 이슈들을 취급하는 여성 중심적/또는 페미니스트적 미디어 생산에 관심, 4가지 범주에서의 여성들의 정보이용 조사
  - ①지역 미디어: 각 사회경제적 단위에서, 단체, 소수자 또는 학위문화 단위의 광범한 대표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미디어
  - ②대안통신(Alternative Communication)
  - ③주류미디어에의 접근: 사용자가 미디어에 비교적 공개적이고 권립되지 않은 INPUT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과정
  - ④미디어 경영과 생산에의 참여: 미디어 기능에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투입하는 과정

#### (4) 평가와 과제

- ① 임미신기이드라인 관련 활동은 평화여성회가 한국사회에서 초기 단계에서 제안하여 운동화하였던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한 한국내 인식의 확산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신기이드라인 관련 문

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시기적으로 늦거나 홍보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있다.

② 레이그 평화회의: 평화여성회가 시민단체들을 조직하여 레이그회의 참석을 확대함으로써 평화여성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인지를 고취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레이그회의 이후 한국의 평화운동이 양각, 질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운동 단체들의 연대가 강화되어, 이것이 평화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에서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영문소식지는 레이그평화회의 중 국제연대모임에서 평화여성회를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내용의 중복, 영어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편집상의 미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향후 평화여성회의 영문(해외)홍보를 위하여 영문보로서 발행과 더불어 영문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해야겠다.

④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서명운동은 보다 회원들 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갈등해소와 관용에 관한 핵심”은 한국어로 진행된 최초의 핵심이었다. 본 주제는 평화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비폭력적 갈등해소의 방법론을 한국에 소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방법론을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 5. 재정·조직관리위원회

###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명선
- 위 원 : 서미숙, 최경원, 박형욱, 김경화, 최현숙
- 담당국장 : 안수경

### (2)사업목표

- ①소모임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회원활동 강화
- ②회원, 후원 회원 조직 정비와 관리를 통한 재정 활성화
- ③평화여성회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 (3)사업내용

#### 1) 회의

##### ① 제1차 회의

- 일시 : 1999년 4월 6일(화)오후 3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최현숙, 김숙임, 안수경
- 내용 : 1999년도 사업공유, 소모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후원회원의 밥 개회의 건, 순회강연 조직에 관한 건, 전달례와 무궁화 생필품 나누기에 관한 건

#### ② 제2차 회의

- 일시 : 1999년 5월 19일(수) 오후 11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김숙임, 안수경
- 내용 : 후원회원의 밥 개회의 건, 순회강연 조직에 관한 건, 전달례와 무궁화 생필품 나누기에 관한 건

#### ③ 제3차 회의

- 일시 : 1999년 6월 15일(월) 오후 1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최현숙, 김숙임, 안수경
- 내용 : 후원회원 확보에 관한 건, 전달례와 함께하는 평화가족 캠프에 관한 건

#### ④ 제4차 회의

- 일시 : 1999년 7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최현숙, 김숙임, 안수경
- 내용 : 후원회원의 밥에 관한 건, 전달례와 함께하는 평화가족 캠프에 관한 건, 울산 YWCA 방문에 관한 건, 전달례와 무궁화 8월 모임에 관한 건, 전달례와 무궁화 평화캠프 평가와 결산보고

#### ⑤ 제5차 회의

- 일시 : 1999년 9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최현숙, 김숙임, 안수경
- 내용 : 후원회원의 밥에 관한 건, 평화기금아련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건

#### ⑥ 제6차 회의

-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오후 3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김숙임, 안수경, 김연수
- 내용 : 후원회원의 밥에 관한 건,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에 관한 건

#### ⑦ 제7차 회의

- 일시 : 1999년 11월 12일(금) 오후 6시
-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18층 산호실
- 참석 : 윤병선, 서미숙, 최경원, 박형숙, 김숙임, 안수경
- 내용 : 후원회원 초청강담회 최종 점검의 건,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에 관한 건

### ⑧ 제8차 회의

- 일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최경원, 김숙일, 안수경, 김연수
- 내용 :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에 관한 건, 2000년도 위원 보강의 건, 99년도 사업평가와 2000년 사업계획의 건

### ⑨ 제9차 회의

- 일시 : 1999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김숙일, 안수경, 김연수
- 내용 :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평가의 건, 99년도 사업평가와 2000년 사업계획의 건

## 2) 전달래와 무궁화 모임

### ① 사업취지 및 목적

1년에 걸친 탈북여성과의 대화 모임을 통해 남북한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을 상호이해 함으로써 남북한 여성들이 상호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 체제 적응력을 향상시켰다. 이 모임을 계층함으로써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 소속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달래 무궁화 모임을 조직하여 월 1회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기로한다.

### ② 사업내용

#### ㉠ 제1차 모임

- 일시 : 1999. 2.24(수) 오후 6시
- 장소 : 본회사무실
- 참석 : 탈북여성 10인, 무궁화 8인
- 내용 : 전달래 무궁화 모임 방향 논의와 1년 행사 계획

#### ㉡ 제2차 모임

- 일시 : 1999. 3.18(목) 오후 5시
- 장소 : 지하회의실
- 참석 : 탈북여성 9인, 무궁화 8인
- 내용 : 전달래 무궁화 모임 내규 제정

④ 제3차 모임

- 일시 : 1999.4.6(화) 오후 5시
- 장소 : 윤명선 무궁화 팀장 역
- 참석 : 탈북여성 2명, 무궁화 7명
- 내용 : 남북한 가정생활 대화, 남한교육현실에 관한 대화

⑤ 제4차 모임(진달래와 무궁화 생필품 나누기)

- 일시 : 1999년 5월 19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여성 평화의 집 지하 강당
- 참석 : 30명
- 내용 : 진달래와 무궁화 생필품 나누기, 북한 함흥순대 판매 등

⑥ 제5차 모임

- 일시 : 1999.6.24(목) 오후 5시
- 장소 : 장인숙 진달래 팀장 역
- 내용 : 남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대화와 밥·사랑 나누기
- 참석자 : 진달래 10명, 무궁화 10명

⑦ 제6차 모임(진달래와 무궁화 평화가족 캠프)

- 일시 : 1999.7.10.(토)-11.1일 (1박2일)
- 장소 : 경기도 평주군 열미리 수양관
- 주제 :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북한의 문화
- 참석자 : 진달래 9명 어린이 3명/ 무궁화 10명(사무처 포함) 어린이 4명 - 총26명

⑧ 제7차 모임

- 일시 : 1999.8.24.(화)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 서울랜드 놀이동산
- 내용 : 남한의 놀이시설 경험과 대화
- 참석자 : 장인숙, 조연지, 윤명선, 안수경, 김연수의 다승학교 학생 포함 40여명

⑨ 제8차 모임

- 일시 : 1999.10.6(수) 오후6시
- 장소 : 이우정 선생님 역
- 내용 : 남북한의 추계명절에 대한 대화와 작은사랑 나눔 바자회
- 참석자 : 진달래 9명, 무궁화 8명

⑩ 제9차 모임

- 일시 : 1999.11.22 오후6시
- 장소 : 주영희 진달래 역
- 내용 : 식당개업 축하와 진달래들의 생활상 함께 나눔
- 참석자 : 진달래 10명, 무궁화 8명

⑪ 제10차 모임

- 일시 : 1999.12.11(토) 오후2시
-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 내용 : 평화기금마련 행사 참여와 장기차량
- 참석자 : 진달래 12명, 무궁화 10명

### 3) 후원회원 초청 간담회

- 일시 : 1999년 11월 12일 저녁7시
-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18층 산호실
- 목적 : 후원회원의 확대와 후원회원과의 상호 증진
- 전체진행 : 윤명선 위원장
- 내용 : 후원회원 소개 및 인사 나누기/이우정 수석대표 인사말씀/ 평화여성회 소개 / 감사과 증정(김종람, 유열)/후원회원 인사말씀/평화만들기를 위한 간담회/ 감사의 선물 증정/기념촬영/기타-평화여성회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앨범전시
- 후원회원 참석자 : 김종람(한양대 총장), 박상환(아시아 항공 상무), 김원석(변호사), 유열(가수), 박희영(수원고등학교 교사), 박재호(서울랜드 공연팀 파랑), 김영환(국회의원), 전은주(김영환 의원 처) --- 이상 8명 참석
- 본회 참석자 : 이우정, 장현벽, 윤명선, 서미숙, 최경원, 박형욱, 최현숙, 김숙임, 김정수, 안수경

### 4) 평화의식 확산과 회원 확대를 위한 울산 YWCA 방문

- 일시 : 1999년 8월 11일(수)
- 장소 : 울산 YWCA
- 내용 : 평화강연과 여성평화운동에 관한 간담회
- 제목 :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역할(김숙임)
- 참석자 : 울산 YWCA 회장단, 실무자, 울산여협 회장, 울산지역 여성 시의원
- 본회참석 : 윤명선, 김숙임, 김경화, 최현숙
- 후원 : 아시아 항공

## 5)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 ① 사업개요

②세 목 :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③슬로건 :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가 옵니다

④일 시 : 12월 11일 (토) 12:00-22:00

⑤장 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CAFE

⑥목 적 : 평화기금 확보와 회원의 단합

⑦내 용 : ① 판매- 티켓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을 이용한 음료, 음악 판매  
- 기증품 (회원, 후원자의 기증품), - 헌신물품



- 성탄선물 (가짜미식레, 맥가래, 크리스마스 트리)

① 프로그램 (전체 사회 : 김숙임 사무총장)

시간	내용	비고
8:00	물품운반	사무국
9:00	행사준비작업 (행사장 장식 등)	사무국, 자원봉사자
12:30	평화의 담소 (12:00 - 14:00) 탈북여성 장기자랑 연습	장인숙 외
13:00	진달래 무궁화 모임	장인숙, 윤명선
14:00	예쁜아이들 노래공연	최정민
14:3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인사 참가단체 소개	윤명선위원장 이우정대표 인사
15:00	탈북여성 장기자랑 Peace Talk	
16: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인사 행운권 추첨 장기자랑 평화를 위한 한마디	이현숙 대표
17:00	회원장기자랑 Peace Talk	
19: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인사 참가단체 소개 장기자랑	정현백 대표
20:00	행운권 추첨 다함께 노래부르기	
21:00	댄스파티	
22:00	정리 및 인사	

- 'Peace Talk': 고은광순, 이나미, 조용환, 조재국, 신혜수, 이지누
- 여성 건강상담 및 한방무료진료 (15:00-17:00): 대한여한의사회
- 후원회원 초청: 김종광, 박희영
- 노래전행: 민연련 김시향 간사

②참여인원: 회원, 후원자,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약 250명)

③주 관: 재정조직위원회

④실무담당: 김연수

⑤후 원: 대한여한의사회, 이학회, 대통령직속 여성특위, 국민회의 여성특위, 기독교민회, CBS, 녹색연합, 민족회의, 민화협, 성공회대, 여성교회,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여신협, 장상연합회, 전국여교역자협의회, 대인지회대책,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천주교여성공동체, 한빛

교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출연 찬 : 하이프리주, 아이오러, 호원당, 대한각, 린나이코리아, 리즈클럽, 시피  
코국제고역, 하얏트호텔, 승리, 현양대, 대한예한외사회(무요권료)

참가 중 : ㉠음식기증 : 윤명선(담양정), 최경원(태골파전), 대표단(수육), 김경화  
(셀러드, 김치)

㉡물품기증 : 이희호여사, 서미숙, 최경원, 권혜순, 고은광순, 이순자,  
박애경, 김지정, 박금혜, 김매연, 이은선, 이낙호, 김옥  
경, 미대사관 정치참사관 부인, 한삼지

원자원봉사자 : (약 25명)

평화회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회계보고 **(1999년 12월 16일 현재)**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예산대비	항 목	금 액	예산대비
후 원 금	1,300,000	▽ 1,770,000	인건비	400,000	▽ 200,000
티켓수입	6,307,000	▽ 3,963,000	인쇄비	385,000	△ 25,900
• 단체구입	1,001,000	▽ 1,300,000	사무비	132,180	▽ 43,770
• 개인구입	5,306,000	▽ 2,663,000	통신비	133,720	△ 28,050
기증품 수입	3,978,500	△ 1,915,100	재료비	1,712,050	△ 178,550
			장소사용료	800,000	△ 100,000 (음향기기 제외)
			진행비	275,500	△ 212,500
수입합계	11,585,500	▽ 3,818,980 (집수입 : 1,080,000)	지출합계	3,838,450	△ 166,230
현재총장권역	7,747,050				

※ 1999년 12월 22일 현재

- ◇ 총수입 : 13,245,227원
- ◇ 지 출 : 3,38,450원
- ◇ 현잔액 : 9,406,777원

#### (4) 평가

##### 가. 성과

① 99년 초에 새롭게 조직된 지역 소모임을 프로그램은 개발과, 조직적으로 강화하지는 못했지만 평화기행팀과 탈북여성후원 모임인 전달대와 무궁화 모임을 사무국과 협조하여 활성화시킨 점은 다른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모임을 통해서 탈북여성들과 자매애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후원회원 초청 간담회는 본회의 후원자들에게 평화여성회의 활동상에 대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후원회원이 평화만들기의 후원자임에 대한 자부심과 후원의지를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③ 재정모금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지방순회 평화강연이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회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지방순회 강연의 목적을 재정모금보다는 회원확대에 두기로 했다.

④ 재정위원과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평화기금마련행사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회원 자녀와 부부, 식구들이 함께 평화만들기의 일원으로 기금마련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전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 나. 과제

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탈북여성과의 모임(전달대 무궁화 모임)을 최고중심의 자매애적 관계 형성하고, 다양한 소모임 확산은 자발적인 회원의 지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발전적인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지방순회강연과 후원회원의 탐, 기타 재정확보 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재정자립과 회원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③ 평화기금마련 행사를 통해 회원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나 평화여성회의 특성과 활동상을 충분히 홍보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기금마련 행사는 일년동안 평화여성회의 특성과 활동상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구 성

#### ① 이 사 회

- 이사장 : 김윤숙
- 이 사 : 박분영, 윤영애, 이문우,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 ② 원 장 : 정현택

#### ③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정현택
- 편집위원 : 김귀옥, 김숙임, 김현미, 박현선, 손덕수, 윤덕희, 이금순, 조영희, 차인순
- 담당국장 : 김정수

### (2) 사업내용

#### 1) 회의

##### ① 6차 편집위원회

- 일시 : 1999년 4월 2일(금) 오후 4시
- 장소 : 본 회 사무실
- 참석자 : 정현택, 김현미, 이금순, 차인순, 김숙임, 김엘리
- 내용 : 원고청탁과 접수 현황 검토, 과담 내용 논의, 원고 검토는 각자 하기로 하고 이  
에 대한 논평은 7차 편집위원회에서 하기로 하다.
- 발행 예정일 : 6월 중

##### ② 제7차 편집위원회

- 일시 : 1999년 4월 16일 (금) 오후 4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참석자 : 정현택, 김현미, 윤덕희, 차인순, 이금순, 김숙임, 김엘리, 김정수
- 안건 : 원고 검토, 과담회 내용 검토(김현미위원 작성), 여성특위 연구용역 공모의 건

##### ③ 제8차 편집위원회

- 일시 : 1999년 5월 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참석자 : 정현택, 김현미, 김귀옥, 김숙임, 김정수
- 안건 : 원고 검토, 과담회 내용 검토, 여성특위 연구용역 공모 보고

##### ④ 제9차 편집위원회

- 일시 : 1999년 6월 8일 (화) 오후 1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자 : 정현백, 김귀옥, 윤덕희, 이금순, 김경수
- 안건 : 여성특별위 여성통일외식 프로젝트 일정과 내용논의, 원고 검토, 좌담 복록 검토, 출판사 선정

### ④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회

- 일시 : 1999년 6월 23일 오후5시
- 장소 : 송원
- 참석 : 김귀옥, 이문우, 최만자, 정현백, 김숙임, 김경수
- 내용 : 새원장 선임의 건(정현백 원장), 연구원의 발전에 관한 토론

## 2) 탈북여성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① 일시 : 1999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②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③ 주최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④ 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⑤ 참석자 : 75명

⑥ 내용 : \*사회 : 최만자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발표 :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토론자 : ① 조흥숙(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탈북여성들의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② 정현백(성관대 사학과 교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탈북여성들의 여성외식을 중심으로

③ 이금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탈북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④ 윤길중(대통령부 지원1과장)-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⑤ 안효연지 (탈북여성)-탈북여성들의 입장에서

⑥ 정경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여성단체의 입장에서 탈북여성들의 지원방안과 역할에 대하여

\*질문 및 자유토론

⑦ 홍보 : 문화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YTN, KBS라디오, MBC라디오, 평화방송, 시민의신문사, 여성신문, 내일신문, 통일정보신문, 한국통일신문, 종교주간지 등.

## 3) 연구총서 편집 계획안

① 연구총서 제목 : 가칭 『여성·평화』 연구총서

② 대상 독자 :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관심있는 여성과 일반인, 평화연구자, 학자

③ 발행횟수 : 연 1회

④ 전체 편집방향 : ① 1992년 이래 재출간 되는 것이니 만큼, 전반적인 평화개념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방향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1999년에 발행되므로 그 동안의 여성평화 운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③ 내용(안)

● 특집 ●

1. 삶 속의 깊은 글들

주제 :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은 ? / 일상 속에 은닉되어 있는 비평화  
분량 및 마감일 : 원고지 200자 20-30매 내외

내용 :

- 1)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폭력, 무분별한 인내심 요구/ 박승재
- 2)식당 등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남자들의 태도 / 김현미
- 3)군대문화에서의 남성들의 이야기 / 신용식
- 4)대춘과 남자 / 익명의 한 남성
- 5)민병대의 남비성과 비합리성 / 김영조
- 6)임산부가 바라보는 세상 / 김물순
- 7)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 정유진
- 8)이혼한 여성이 말하는 의사소통 불능의 결혼생활 / 신금순
- 9)기저촌 여성들의 이야기 / 김현선

2. 과담

- 1)주제 :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평가와 전망
- 2)내용 : 평화의 개념 등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을 짚으면  
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 3)사회 : 김현미
- 4)과담자 : 이상열, 김윤옥, 남인순, 정병호

● 연구논문 ●

- 1)군사주의와 여성 / 권인숙
  - 2)통일운동과 여성 : 왜 여성들이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가? / 정현덕
  - 3)북한여성에 관한 논문 / 김기옥
- 시사소점 / 여성의 관점에서 본 코소보 사태 / 윤덕희
  - 평화교육 / 고병현
  - 국제여성평화운동 / 차인순
  - Hague Appeal for Peace (100년 기념 헤이그한국평화회의의 참가기) / 정경란
  - 문화 속의 평화읽기
    - 1) 북한영화 "가족농구단"보고 / 지순희
    - 2) 탈북여성이 바라본 남한의 TV / 조○○

#### 4) [여성·평화]연구총서 과담회

①일시 : 5월 7일 (금) 오후 4:30-8:00

②장소 : 평화통일드림여성회 회의실

③참석자 : 김현미(사회), 김윤옥, 이상열, 정병호, 남민순(정현백, 김숙임)

④주제 :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평가와 전망

⑤내용 : ㉠부분별 평화운동 거론

㉡한국여성평화운동 평가

㉢새로운 평화운동의 패러다임의 모색

#### 5) "여성의 통일 의식과 태도 조사 및 통일 의식 함양 방안 연구"수행 (책임연구: 정현백)

①기금: 여성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

②예산: 2,000만원

③기간: 1999년 6월15일~10월30일 (4.5개월)

④목적: ㉠여성의 통일대비 역량강화

㉡통일 대비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⑤연구내용 :

1장 서론

2장 여성의 통일 의식 조사분석(1,012명)/ 진행: 김귀옥, 차민순

시사관계에 대한 관심,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통일관, 통일방안, 통일정책, 통일운동 참여문제와 통일에서의 여성의 역할

3장 남북여성교류 참석자의 태도조사 분석(20여명)/ 진행: 이광순, 김정수

남북여성교류의 현황('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 일본의 강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장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대북지원관련 여성교류), 남북여성교류를 통한 참석자의 의식변화(북한사회 및 북한여성에 대한 의식변화, 통일에 관한 의식변화, 이질성과 동질성의 확인), 남북여성교류의 한계 및 활성화 방안

4장 여성단체의 통일관련 사업에 관한 연구/ 진행: 정현백, 강남식

여성단체와 통일운동과 통일사업 연계(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의 태동, 군속 및 방위비 삭감운동, 북한노동 돕기운동, 북한이탈 여성주인을 위한 활동, 다양한 평화운동의 전개), 여성단체의 통일 의식과 태도조사, 여성단체의 통일사업과 프로그램 분석(통일사업의 추진과 단체의 발전, 통일사업 프로그램), 여성주의적 관점의 통일운동(여성통일운동의 문제점과 여성주의적 관점, 여성 독자적인 통일사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 여성통일운동의 한계점과 가능성)

5장 남북한 통일대비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진행: 윤덕희

특위사례로 보는 통일과 여성의 역할(통일정책과 통일과정,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통일정책의 문제점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통일을 위한 남한여성의 역할과

문제점(여성들의 통일외식, 남북한 여성교류의 경험, 여성단체들의 통일사업 실적과 외식조사), 통일외의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여성제와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

① 진행일정 : ① 6월 말까지 기본방향 설정 후 보고

② 8월 말경 연구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5부

③ 10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30부

• 1. 단계(6월 중순-7월) : 전체 연구발할 수립과 문헌연구와 설문지 제작, 설문조사 작업

① 여성통일외식 조사(1012명) : 문헌연구, 설문조사 지역 선정(모임2회), 설문조사자 교육(서울과 지방교육 9회), 설문지 인쇄(설문지 작성모임 3회), 설문지역 관공서 협조공문 발송, 설문조사 실시

② 남북여성교류 : 문헌연구, 남북여성교류 참여자 인터뷰 대상 선정, 인터뷰 시작

③ 여성단체 통일외식, 사업 조사 : 문헌연구, 단체자료 수집(모임 3회), 전화인터뷰 실시(설문조사를 위한 기초작업), 설문지 인쇄(모임3회)

④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 방안연구 : 문헌연구, 독일통일 자료 수집

• 2. 단계(8월-9월 중순) : 문헌연구, 설문지 수거와 분석을 위한 조정작업, 분석

① 여성통일외식 조사 : 설문지 수거와 분석, 빈도표 작성, 설문조사 분석, 초고 작성 시작

② 남북여성교류 : 문헌연구, 인터뷰 계속 진행

③ 여성단체 통일외식, 사업 조사 : 전화 인터뷰와 설문자 교육, 설문조사 실시, 설문지 수거 시작

④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방안 연구 : 문헌연구, 초고 집필 시작

• 3. 단계(9월 중순-10월 말) : 각 단계 최종보고서 집필 및 제출

각 단계 최종보고서 집필과 연구내용 검토를 위한 워킹 진행(3차례), 여성들의 통일 역량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개최, 최종보고서 집필과 제출

⑤ 향후계획

① 1월 초 여성특위에 연구결과 발표회에 대한 심포지움(세미나) 제안서 제출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평가도 포함할 예정)

② 2월 초 경 여성특위와 공동으로 심포지움 개최예정

③ 정식 보고서는 여성특위를 통해 출판-배부될 예정

## 6) 여성들의 통일외식 함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① 목적 : 본 좌담회는 "통일외식조사"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여성들의 통일외식 함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통일운동단체 등의 실무자등을 통해 여성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통일운동의 활성화방안, 여성통일외



식 중앙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2. 일시 : 1989년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

3. 장소 :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4. 참석자 :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오혜관(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  
장), 이승환(민족회의 사무총장), 김형원(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5. 연구자 : 장현덕, 윤탁희, 김귀옥, 강남식,

6. 사무처 : 김숙임, 김정수

7. 과당회 내용 : 한국 통일운동/여성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여성들의 통일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의견 모으기 등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감사보고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귀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1999년 1월 1일-12월 31일의 사업  
과 회계를 감사한 결과 착오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감사의 소감을 첨부합니다.

## <감사건>

1. 현금출납부
2. 원장
3. 수입지출 결의서
4. 봉장

2000년 1월 18일

감사 이 문 우



은 영 애





# 2000년 사업계획안

(2000. 1.26 - 2000. 12.31)

---

1. 사업방향
2. 각 위원회 사업 계획



## 1. 2000년 사업방향

### 1. 평화여성회 2000년 사업방향: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본회는 본단과 대립을 넘어 관용과 공존의식을 확산시키므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라는 1999년의 사업방향을 계승한다. 유엔이 정한 "2000년 세계 평화 문화의 해"를 맞아 유엔과 세계 평화단체와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대중적인 평화문화의 확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1) 평화여성회의 사업목표

- ① 유엔이 정한 '2000평화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평화문화를 증진하는데 주력한다.
- ②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제시, 의견감시활동, 대정부 활동 등을 강화한다.
- ③ 내부 사업기반을 다지고 회원확대와 재정확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 ④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와 평화여성운동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2000년 평화여성회 중점사업 및 주요사업

#### (1) 중점사업: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 ① 여성평화아카데미: 대중여성들을 위한 평화교육
- ② 평화교육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
- ③ 여성통일아카데미: 통일대비 여성지도력 양성프로그램
- ④ 평화교육 심포지움

#### (2) 주요사업

- ① 평화문화의 증진
  - 평화캠페인: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전개, 학생과 여성 대상
  - 평화기행: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미군에 의한 피해현장, 본단지역 또는 대인지회대설 현장 및 피해자면담 등
- ② 북한문학과 북한여성연구와 교육
  - 옷감보내기, 임산부용 영양제 등 북한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지원 품목을 선정해서 지정 기탁하는 방안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 북한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출판
  - 남북여성에 대한 교육, 상담, 정책제시

- ③남북여성교류와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국제평화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 한일평화회의, 한일여성평화네트워크 등
- ④군축합동(연대를 통한 방식) -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단 활동, 전문가 학삼, ASEM회의를 통한 국제연대와 공동대응을 통한 군축외제 기발 및 실행
- ⑤회원 재정비 및 확대와 후원자 확대 등 조직 활성화와 재정자립 강화 추진

## II. 2000년도 각 위원회 사업 계획

### 1. 정책기획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조영희
- 위 원: 공동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2-3인 포함

#### (2) 사업목표

- ①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
- ②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③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 (3) 사업내용

- ①중점사업과 주요사업을 검토한다
- ②본 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2-3회 실시한다.

### 2. 평화통일사업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고은실
- 위 원: 박현선, 배옥병, 안수경, 윤수경, 장도송

#### (2) 사업목표

- ①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②남북한의 통합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 ③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

#### (3) 사업내용

##### ①북한여성과 어린이 돕기 캠페인

- 일시 : 2000년 3월부터 8월
- 대상 : 섬유공장, 전국민
- 내용 : 옷감 및 영양비스켓 등 대북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



②남북통합사회의 준비와 남북여성교류 재개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남북한 통합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존모델 개발
- 남북여성 교류 및 협력 사업 개발
- 남북여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③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전개

- 일시 : 2000년 5월-8월
- 내용 : 평화문화의 해를 맞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여성 사이버 백일장
- 대상 : 여학생, 일반여성

④평화군축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내 연대활동

-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단 활동
- 평화·통일과 관련한 국내 연대활동

### 3. 평화교육위원회

####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은선
- 위 원 : 강선미, 강순원, 박분아, 문화영, 박애경, 백미순, 최영숙, 김정수

#### (2)사업목표

- ①평화외식과 통일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 실시
- ②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개발
- ③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활동 전개

#### (3)사업내용

##### ① 평화교육 실시

- ㉠ 여성통일아카데미: 남북한 여성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여성통일교육
  - 사업시기 : 1999년 4월-6월, 9월-10월
  - 사업대상 : 서울시내 거주 대학원 재학 여학생,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가진 30-50대 여성
  - 교육인원 : 총 50명(기당 25명)
- ㉡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 시기 : 9월-11월
- 대상 : 본회 회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 ②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양곡
  - 시기 : 3월-6월
  - 대상 : 평화, 통일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학자 등

②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 시기 : 6월, 11월
- 대상 : 본회 회원 일반인 선착순
- 기행지 : 대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 대인지회 피해마을, 비무장지대 등

③평화교육 심포지움 개최

- 시기 : 2000년 10월
- 내용 : 평화교육의 시각에서 학교교육 진단, 분단 극복을 위한 학교교육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주제 개발

④평화교육의 전문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과 준비

- 대상의 확대 : 초·중·고등학생, 교사, 공무원, 일반인 등
- 평화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정보수집과 연구
- 평화교육 위탁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

4. 국제협력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현숙
- 위 원 : 권혜순, 김미연, 노길원, 윤정숙, 정숙자, 홍승희, 박유희

(2) 사업목표

- ①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 ②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형성
- ③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 ④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3) 사업내용

①<ASEM 2000 민간포럼> 한국준비위원회 평화분과 간사단체 활동

- 외국 평화단체와 한국평화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배포
- 아셈 2000 연간포럼 심포지엄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개최

② 영문 홍보활동

- 영문보고서 연 1회 발행
- 영문홈페이지를 통한 홍보(<http://www.jinbo.net/wmp/>)

③ 국제평화여성네트워크 원성과 교류

- 중국아여성평화네트워(남북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평화네트워 모의)

④ AFSC와 갈등해소를 위한 워킹

- ㉠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 일시: 2000년 5월 중
- ㉡ 여성과 갈등해소
  - 일시: 2000년 9월
- ㉢ 한국상황에서의 관용훈련
  - 일시: 2000년 11월

⑤ 갈등해소 전문가 훈련 실시

- 기간: 2000년 봄-2001년 여름
- 후원: AFSC
- 내용: 한국인 평화운동-갈등해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 인원: 약 12명(각 단체 3명 추천)

⑥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개최

- 일시: 2000년 5월 24일
- 내용: ‘평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및 행사
- 주최: 여성단체 및 평화단체 공동 주최

⑦ 21세기 한반도 평화운동전략개발을 위한 분쟁지역의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와 평화건설(Peace Building) 사례연구 워크샵

- 일시: 4월-7월
- 대상: 분회 회원, 여성활동가, 관련 학자 및 연구원, 평화단체 지도자 및 실무자 (아셈3 평화분과), 시민단체 지도자 약 30여명

⑧ 국제여성평화운동 관련 Study 모임 구성과 영어자원봉사자 그룹 조직

## 5. 제정·조직위원회

###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명선
- 위 원 : 서미숙, 최경원, 박형욱, 김경화, 김은희, 김옥걸, 전은주, 김상운모, 이낙호

### (2)사업목표

- ①소모임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회원활동 강화
- ②회원 후원 회원 조직 정비와 관리를 통한 재정 활성화
- ③평화여성회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 (3)사업내용

- ①회원소모임 조직과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활동
  - 탈북여성 후원 모임(신달래와 부궁화)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기타 소모임 조직과 기존의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 ②후원회사와의 밤 개최
  - 시기 : 2000년 6월 중
  - 목적 : 후원회원 확대와 후원증진 및 재정 확보
- ③회원확대를 위한 순회강연
  - 대상 : 국내외 단체, 교회 등
  - 목적 : 평화의식 확산과 후원자 및 회원 확대
  - 후원 : 아시아나 항공
- ④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개최
  - 시기 : 12월 초
  - 내용 : 평화축제 형식으로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기금 모금

##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1) 구성

- ① 이사회

- 이사장 : 김윤옥
- 이 사 : 박분미, 윤영미, 이문우, 이현숙, 정현덕, 최민자
- ② 권 장 : 정현덕
- ③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정현덕
  - 연구·편집위원 : 강남식, 김귀옥, 김현미, 박현진, 윤덕희, 이금순, 차인순
  - 자문위원 :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강정구, 고병현, 이상열

## (2) 사업내용

- ① 연구총서 『여성·집회』 발행
  - 시기 : 2000년 3월 경
- ② 단행본 『전달래기 본 무궁화·무궁화가 본 전달래』 발행
  - 시기 : 8월 경
- ③ “여성들의 통일외식 조사 및 통일외식 함양방안 연구” 발표회
  - 일시: 2000년 2월 중순
  - 주관: 평화여성회, 여성특별위원회 공동주관
  - 내용: 여성들의 통일외식조사, 남북교류참석자 태도연구, 여성단체의 통일외식과 통일활동, 여성들의 통일외식 함양방안,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등

## 7. 기 타 : 홍보활동

- ① 본 회 소식지 연 4회 발행
- ② 언론리처를 통한 본회 소개 및 평화캠페인 활동
- ③ 홈페이지를 통한 본회 소개 활동

## 2000년 월별 사업계획안

월	장래기획위원회	평화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교육위원회	기타
1	여성평화운동위원회 (4)					2000년 1차 이사회 대외외교교육 소식지 발행(1)
2	여성평화운동위원회 (5)				기관, 회원 회의 총회 준비 회의	여성들의 통일여건 조 사 및 통일여건 관련성 조사, 연구 발표회
3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게시 북한여성학 연구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2000년 여름)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2)
4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3)
5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4)
6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5)
7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6)
8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7)
9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8)
10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9)
11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10)
12	장세원학회	북한여성학 연구회 동기 캠페인 평화운동발행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평화교육진흥과인민학교생태시 제1기 여성평화운동위원회	공동체교육연구소 주관 KAFSC 초청 5.24 국제여성학의 날 행사 분쟁지역 평화운동 워크숍	연구용서 '여성평화' 발 행	소식지 발행(11) 2000년 5월 총회

\* 상항에 따라 시기와 내용은 변경가능합니다.



#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형태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안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의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상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의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공동대표 중 1인을 수석대표로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4. 감사 2인
5. 시무총장 1인, 시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임원선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이 중 수석대표는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외의 의장이 된다. 수석대표 유고시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외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석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석대표가 소집한다.

1. 수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수석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인원의 해산 및 경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양도,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수석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수석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선에 관한 사항
2. 규약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이사회는 수석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수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수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연인,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사회회의 의결은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⑥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석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 제6장 재정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의 구분)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양여, 임차,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입임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①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와 의결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② 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8장 보칙

제33조(경관제정 및 개정) ①경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②경관의 개정은 이사회에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③발의된 경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회선)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결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수석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연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 정관개정(안)

## 제3장 임원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원안 ②공동대표 중 1인을 수석대표로 둔다.

개정안 ②석재

### 제12조(임원의 선출)

원안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안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원안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이 중 수석대표는 법인의 재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대표 유고 시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운번으로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재반업무를 권장, 관할한다.

## 제4장 총회

### 제16조(소집)

원안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석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석대표가 소집한다.

1. 수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안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안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수석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의 의결)

원안 제18조(수석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수석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18조(수석대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공동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원안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안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원안 제22조(소집)①이사회는 수석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수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기타 수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석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안 제22조(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원안 제23조(구성 등)①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 할 수 있다.

②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안 추가 ③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8장 보칙

원안 제35조(결산) 수석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

# 운영 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수석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어성명화연구원 임직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임기 : 서기, 회계, 일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1. 구성 : 각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익명제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3.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각 위원장은 위임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소집 : 각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2009. 3. 4 개정





##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 제13(의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석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안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 클 모 음

---

1. 헤이그평화회의 보고서
2. WILPF 인턴십 보고서
3. 일미신가이드라인 반대성명서
4. 서해교전 반대성명서
5. 동티모르 사태 관련성명서
6. 국정감사시민연대 항의서한
7. SOFA 개정국민연대 성명서
8. 노근리 사태 관련 성명서



# The Hague Appeal for Peace 1999 보고서

작성/김엘리

## 1. 개요

### 1. 대회명 : the Hague Appeal for Peace

슬로건 : the time to abolish war, Peace is a Human is right

### 2. 기간 : 1999년 5월 11일 - 15일

### 3. 회의 규모 : 1,000 NGO의 지지속에서 1백 국가 이상, 약 1만명 참석 400회 이상의 토론과 기타 프로그램 실행

### 4. 본회 참석자 : 이현숙 공동대표, 김숙임 사무총장, 김엘리 정책국장, 정경란, 최지은 회원(한국민중교육연구소), 장희원 회원(대체대 4년)

### 5. 대회의 목적

헤이그 평화회의의 목적은 세계 시민평화운동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전쟁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거구들을 강화하며 전쟁을 불법화하여 평화로운 세 천년을 시작하려는 데 있다. 1899년 제1차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전쟁을 불법화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더불어 평화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열었다.

### 6. 대회의 의미 : 21세기, 정의와 평화를 위한 헤이그 아젠다

헤이그Appeal은 다년간에 이루어질 협회이다.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conference로 시작된 헤이그 Appeal은 두 번째 단계로서 아젠다 이행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전략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회의의 핵심적인 자료들은 회의 프로그램과 아젠다이며 Core와 Global 프로그램의 각 섹션은 아젠다의 의제와 직접적으로 상응되어지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섹션들은 회의 동안 그리고 그 즉시 조직가와 활동가들에게 행동계획과 권고로 이어질 것이다.

1999년 5월 15일 토요일, 21세기 정의와 평화를 위한 헤이그 아젠다는 유엔 사무총장 Kofi Annan, 독일수상 Wim Kok, 망글라데시 수상 Sheikh Hasani, 요르단의 여왕 Noor에게 전달되어졌다. 또한 이 아젠다는 폐막식에서 벨기에와 코소보에서 온 청년들에게 인계되어졌다.

헤이그아젠다는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요구한다.

①모든 의회는 정부가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한 해결점을 채택하여야한다.

②모든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⑬모든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대인지피조약 이행을 비준하여야 한다.

⑭모든 국가는 정부의 국제조직과 시민사회의 피드백을 위한 새로운 외교방식을 통합해야 한다.

⑮세계는 인도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방관할 수 없다. : 힘이 호소하기전에 가능한 모든 창조적인 외교적 방법을 UN 권위하에서 속속들이 규명하여야 한다.

⑯핵무기제거를 위한 convention 협상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⑰소수기 거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⑱경제적 권리는 시민권으로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⑳평화교육은 세계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㉑전경방지를 위한 글로벌 액션에 관한 계획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 7. 참가 의의

①한국 NGO참가단체는 공동 부스 운영을 통하여 한국의 평화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면서 세계 각국의 NGO와의 네트워크에 힘쓰며, 세계평화실현을 위하여 한국의 평화체제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권화시켰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하여

첫째, 남북한 정부당국과 미국 등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 둘째, 남북한 정부는 군비축소와 인간안보를 실현하고, 대인지피금지협약에 가입할 것, 셋째,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전역미사일 방어 계획(TMD)과 미일가이드라인 거정을 반대하는 것, 또한 세계시민단체들에게 200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셈에서 21세기 평화 정책과 인권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②본회는 미일 신가이드라인 거정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배포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하여 여성평화운동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를 얻는데 힘썼다.

③본회는 헤이그대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감찰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여성관련 평화운동의 전망을 함께 모색하였다.

④모든 포럼과 행사에 본회의 소식지와 활동렛등을 배포하여 본회의 사업을 홍보하고 다 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앞으로 다양한 여성평화운동단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기위한 계기를 만들었다.

## II. 활동

### 1. 여성(gener)관련 평화확산 기획팀 참여

- IPOR 주최, "Women lead the Way to Peace" 프로그램 참여

- 이현숙 공동대표가 아시아지역 Working group이 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함.
- "Women lead the Way to Peace" (1999년 5월 13일 오전 9:30-11:30)에서 이현숙 공동대표가 "매스미디어와 여성"관련 발제문을 발표함.

## 2. 일미방위협력저항 개정 반대에 관한 집회 및 홍보

- 일시 : 1999년 5월 12일 수, 오후 1시 - 오후 1시 30분
- 장소 : Congress Hall 현관
- 내용 : 일미방위협력저항 개정 반대에 대한 선언문 낭독 및 배포  
Peace Boats와 함께 평화의 춤추기

## 3. 한국NGO참가단 공동 활동

### ①참가단 명단 (참가자 명단은 별지)

-한국NGO 참가단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녹색연합, 새움터, 우리땅미국기저지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이야기공동체, 제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한국대인제외대책회의, 한국어성국제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 15개단체)

-기타 : 세민재단(유재현), 사진(이시우), (김형문)

### ②회의

#### ㉠국내 사전 회의 : 총 5차회의

가)1차회의 : 1999. 4. 6 화, 오후 2시 본회 사무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한국참가단체의 네트워크와 공동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NGO회의를 제안하게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헤이그 대회의 전반적인 지표를 공유하다.

-헤이그대회의 준비를 한국NGO들이 함께하기로 동의하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포럼 개최는 하지 않기로 하고, 공동부스 운영, 이밴트, 성명서발표, 캠페인용 버튼 제작 등의 여부를 각 단체에서 논의한 후 다음 회의에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기로 하다.

나)2차회의 : 1999. 4. 13 화, 오후 2시, 본회 사무실

- 항공과 숙박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등을 점검하다.
- 성명서 초안은 김형수가 쓰기로하고, 부스 2개를 3일동안 운영하기로 하다.

다)3차회의 : 1999. 4.20 화, 오후 2시, 여성평화회의 집 지회회의실

- 한국 공동 성명서 내용의 기본틀에 관하여 논의하다.
- 부스와 이밴트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고 이의 기획과 조직은 민족회의(김태일), 평화인권연대(김진홍)가 담당하기로 하다.

-한국NGO참가단의 단장을 윤정숙으로 하고 간사역할을 김엘리가 하기로 하다.

리)4차회의 :

- 성명서를 보완하여 이강재가 번역하기로 하고, (영문검토 : 김태연) 인쇄는 주한미군



명회근접운동본부(정유진)가 맡기로 하다.

-언론보도자료는 참여연대(이선큐, 김수효)가 발송하기로 하다.

-부스는 2시간씩 개인별로 지키기로 하고, 부스 외의 특별한 이벤트 행사는 갖지 않되, 외국인들에게 배포할 포스터를 20만원 제작비 한정을 전제로 제작하기로 하다. 제작 관련 실무추진은 기운실(양세진)이 맡기로 하다.

미3차회의 :

-포스터 제작은 디지털의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취소하기로 하다.

-전체 프로그램, 한국참가자들의 발표 시간, 준비물, 숙박관련 등을 총 점검하다.

㉑헤이그 현지 모임 : 3차례

가)1차 모임 : 1999. 5.13 수 오후 12시

-점심을 나누고 5월 14일 오후 12시에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다.

나)2차모임 : 1999. 5.14 목, 오후 12시

-5월 14일 기자회견은 현지시정으로 취소하고 5월 15일 오전 9시에 한국공동집회를 갖기로 하고 MBC, KBS 보도촬영에 협조하기로 하다.

다)3차모임 : 1999. 5.15 토

-헤이그대회 이후 한국에서 평가회를 가지기로 하다.

#### ㉒공동 활동

㉑한국NGO 공동 부스 운영 : 1999. 5.12(화) - 5.14(금) 3일동안 오전 9시 - 오후 7시

㉒한국NGO 공동 성명서 배포

㉓한국공동집회 : 1999. 5. 14 금, 오전 9시 - 9시 30분

-진행 : 김용한 (우리땅미국기치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인사말 : 윤정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배경과 취지 설명 : 김창수 (참여연대)

-방송 인터뷰 : 이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 (참여연대)

㉔분회 간사역할 담당 : 회의와 견제운영 조직, 숙박과 항공관련 문제, 언론홍보 등

㉕참조 : 한국참가자 명제와 연설

㉖정신대 할머니 Art Installation (1999. 5.11 오후 6시) : 윤정숙 (정대협)

㉗아시아-유럽 대안안보 확산 (1999. 5.11 오후 5:30) : 김창수 (참여연대)

㉘여성과 전쟁, 그리고 군사집중 (1999. 5.12 오후 5:50) : 정유진(추진이군운동본부)

㉙여성이 평화를 이끈다 (1999. 5.13 오전 9:30) : 이현숙 (평화여성회)

㉚여성이 평화를 이끈다 (1999. 5.13 오전 11시) : 이현숙 (평화여성회), 윤정숙(정대협)

㉛)

㉜여성과 군사폭력 (1999. 5.14 오후 1:30) : 정유진(운동본부), 김현선(새움터)

㉝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핵지대화 (1999. 5.14 오후 5:30) : 김용한(우리땅되찾기)

㉞아시아-유럽대안안보 확산 (1999. 5.15) : 이대훈 (참여연대)

㉟Global Festival (1999. 5. 12) : 김영 (이야기공동체)

### III.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구성

①Plenary Sessions : 개막식(Opening Ceremony), 폐막식(Closing Ceremony)

②Core Program : 크게 네가지 주제, ①군축과 인간안보 ②폭력적 갈등의 방지, 해소, 전이 ③국제인도주의와 인권법, 제도를 ④전쟁의 근원 - 평화문화 발로 육십이 구성되고, 이에 여성문제와 청년문제의 전망이 겹쳐지는 프로그램이 배치됨.

③Global Forum :

④Culture Program : 사진, 그림 전시회, 음악, 연극 등 문화공연

⑤Film Program : 다큐멘터리, 비디오 상영 등

⑥단체 부스(Makerplace), 여성의 정(Women's Space), 청년의 정(Youth Space), 평화성소(The Peace Sanctuary) 등

#### 2. 개막식 :

넬슨 만델라, 달리아라마, 그리샤 미헬, 지미 키터가 연설문을 보내왔다.

아웅산수지가 비디오로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조디윌리엄스, 투투주교, 조지 리모스 톨타, 요셉 팻브리프, 리고베르타 멘추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여

요르단의 여왕 누르, 네덜란드 수상 뢰 록, 방글라데쉬 수상 셰이크 하시나가 참석.

#### 3. 주제별 프로그램

①군축과 인간안보

-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역선의 실행하는 것,
- 군비를 축소하고 인간안보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를 비군사화하는 것,
-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조약에 협상하고 비준하는 것,
- 소무기, 권총 등을 포함하여 재래식 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
- 대인지뢰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
- 우주의 핵화 등을 포함하여 최선의 무기와 군사기술의 사용과 발전을 방지하는 것,
-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 convention을 실행하는 것,
-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실험과 사용을 주시하고 막을 것,
-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것.

②새로운 군사기술과 이들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 (1999. 5.14 오후 3:30)

(가)주관 : International Network fo Engineers &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나)발제자 : Gotz Neuneck, Ingo Ruhnann, Sami Faltas

(다)내용

-비치명력 무기

-우주미사일방어요격 체계; 고도로 발달된 신무기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심리전에 있으며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대한 토론의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으나 문제는 이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의 문제이다.

-국제인권주의 법과 신무기 금지운동: 인권법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 금지, 무차별 살상 금지, 피해복구 비용보다 전쟁비용이 더 작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신무기들은 이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신무기 통제를 위한 치료공개, 여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는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통제기제로 보아야 한다.

⑤아시아-유럽 대안안보 전략 핵심 (1999. 5.13, 1999.5.15)

(기)주관: 초국적연구소 (TNI), Focus on the Global South, AFSC

(나)발제자: Randall Forsberg, Laszlo Pernecky, 김장수, 이대훈 등

(다)내용

-아시아의 군비경쟁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 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전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아시아 평화단체간의 공동 필요성

-미국 주도의 일방적 경제, 무역자유화 조치가 아세안과 같은 지역 안보/협력기구 등 지역의 자주적인 안보, 협력 관계의 약화에 미친 영향

-최근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도입계획과 미일신방위체결(신가이드라인)이 아시아 전역에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

-나토확대전략이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특히 최근 유고공습이 가져온 러미, 중미의 긴장관계와 미국주도 군사패권에 대한 반감 확대

-아시아의 자주적인 다년간 협력적 안보체계 발전에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서 아시아의 미군 기지들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들을 죽인다”: 군수무역이 갖고 있는 반인도주의, 비윤리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여론화할 필요성

-군수무역 경제, 군비증강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각국 시민사회 주체간의 협력으로 협력적 안보체계 구축의 방안을 논할 필요성

⑥특별적 갈등의 해소, 방지, 전이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
- 시민들을 평화전문가로서 훈련시키는 것,
- 국제법 등에서 제재규약의 사용을 적절히 하게 하는 것,
- 인도주의 개입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것,
- 젊은이들에게 과위를 형성시키고, 소외된 자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
- 시민사회조직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일,

- 평화를 위해 지역과 하부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
- 다양한 외교방식을 주류화하는 일,
- 평화만들기를 위한 사전행동의 방법으로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①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역선 : 평화체제유지를 위한 구조 만들기 (1999. 5.13 오후 5:30)

(가)주관 :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나)내용 :

-군비확장과 땅어안보 이면에는 반화를 위한 민중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많은 지역들이 있다. 이는 다음의 몇가지를 내포한다 : 국가내에서의 국가와 집단들사이의 신뢰형성을 위한 방안, 갈등해소를 위한 비폭력적인 방법, 군사갈등 방식의 분쟁 방지, UN의 제조적과 새로운 또는 개정된 정조, 지역 안보 조직의 보편적인 참여, 학교와 공동체내에서의 평화교육, 갈등이후의 화해와 제형성, 군사갈등을 종식시키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정의 역할과 국제법의 강화 등

②효과적인 세계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 군사갈등의 해소와 방지를 위한 UN 역량 고강 (1999. 5.14 오전 9:30)

(가)주관 : World Federalist Association 등

(나)내용

- UN의 역량을 고강시키기위한 구조변화
- UN에 명성과 화해와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위한 전문가와 NGO service 형성
- UN 갈등방지과 평화만들기 활동에 투자하는 일 등

③국제인도주의의 인권법, 제도들

- 국제사법법정의 확립을 위한 글로벌 명제인을 개진하는 것,
- 국제인도주의와 인권법이 만나는 지점에 긴밀한 협력을 조장하는 일
- 국제사법법정의 지지를 강화하고, 국제 범죄를 위한 보편적인 판결을 강화하는 것
- 글로벌 정의를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체제내에서 국제법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형성하는 것
- 군사갈등시에 행해진 여성폭력을 종식하는 것
- 어린이 군인 이용을 중지하는 것
- 인권의 옹호자나 활동가 그리고 희생자를 보호하는 일
- 국제법의 강화를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인 메카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의 훈련
- 증가하는 공공의 지식, 교환, 이해를 촉진시키는 일

④전쟁의 근원 - 평화문화

-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교육 실시,
- 지구화의 역효과에 맞선 다양한 행위들,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 사용,
- 신식민주의를 제거하는 일,
- 국제적인 민주주의와 외로운 밀로반 통치를 촉진하는 것,
- 인종, 민족, 종교, 성의 차별을 제거하는 일,
- 성의 평등을 조직하는 것,
- 어린이와 청년을 보호하고 존경하는 것,
- 비폭력의 행동을 선언하는 것,
- 폭력문화를 평화와 정의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세계 종교를 참여시키는 것

③ 평화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1999. 5.12 수 13:30-17:00)

(가)주관 : HAP 총무처

(나)발표자: Desmond Tutu 수기경, Magnus Hasvelsrud(교육의 초월과 독립, 노르웨이 기술과학대학), Sami Adwan(팔레스타인갈등의결연자), Ruth Firer(에루살렘히브리대학), 요한 갈롱, 베르티아나 그로시(College et Ecole de Commerce), 다케히코 이모(인간발전의 초월과 독립, 와코대학), Lalita Ramdas(성인교육국제협의회), Betty Reardon(고서대학, 콜롬비아대학교), Toh Swee-Hin(국제교육발전센터)

(다)내용:

-전쟁과 같은 폭력적 갈등이 있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위험이 비교적 덜 존재하지만 계속되는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코스타리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교육은 학교의 필수적인 과목으로서 평화교육은 실질적인 힘(power)의 중심의 전환이다. 50명 가까운 학생들의 앞에 선생은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그런 힘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넘겨주고 아이들을 교사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지 않는 그런 속에서 평화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power의 중심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갈등에 대한 논의로서 평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주의가 기본적으로 존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 성별, 지역 등의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 특히 제1세계라고 지칭하는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나 각 나라의 원주민들이 정복자들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의 문화가 미개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이 존중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평화문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평화교육을 실시할 때 그 내용의 진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 등이 다루어졌다.

④ 평화문화 강조에 있어서 청년의 역할 (1999. 5.13 목 오후 3:30)

(가)주관 : Ukrainian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Human Rights

(나)내용 :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쟁과 갈등에 의한 폭

백이 끊이지 않고 여권의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헤이그에 모여 평화를 위한 관심을 갖고 논의하여 평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세계, 국내상황을 분석하여 평화문화에 기여한다.
- 평화포럼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 성인들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 전 세대별로 적절한 평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케한다.
-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갈등해결을 시도한다.(콘서트, 드라마, 글쓰기 등)
- 헤이그 행사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여 평화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만든다.
- 평화에 대한 형식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NGO의 비형식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학술적인 측면보다 현실과 실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주력하도록 한다.
- 전 세계청년네트웍을 만들어 평화운동을 확산해야한다. 동시에 각 지역과 나라 뿐만이 아닌 UN에서 일정 정도의 지위를 확보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한다.

#### 4. Core Program 중 여성관련 프로그램

##### ◀폭력적 갈등의 해소, 방지, 전이

##### ①Women Lead the Way to Peace (1999.5.13 9:30-1:00)

-주관 : IFOR

북한여성 임춘애 : 정신대와 관련하여 많은 기관과 UN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권의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있다. 일본정부는 사과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practical measure 있어야 한다.

##### ②Engendering the Peace Process (1999.5.14 9:30-11:00)

(가)주관 : WILPF, IA, WWF, IMTD

(나)발제자 : Eleonor Conda, Alberto Godenzi, Barbara Lochbihler, hanan Ashrawi

(다)내용 : ㉠여성과 평화 형성을 위한 방식

㉡21세기의 여성해방적인 평화와 안보 전망

㉢갈등에 있어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를 위한 남성과 남성다움

##### ◀국제인도주의와 인권법, 제도들

##### ③Women Against War and Armed Conflict (1999.5.12 1:30-7:00)

(1)제명 1

(가)주관 : 여성피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여성들의 조직

(나)내용 :

㉠전쟁시에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강간, 정신대문제 등 전쟁이 여성들에게 주는 고통적 요소, 군대주둔으로 인한 여성들에 대한 피해 등을 실패하면서, 여성피난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여성단체들과 청년단체의(스리랑카, 보스니아, 소말리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경험을 공유하다.

① 그리고 여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여성들이 peace maker가 될 것인가?에 있어서 여성들의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고 하다.

중국계사법재판소의 역할강화 등에 관하여 논하다

## (2)패널 2

(가)주관 : East Asia / US Women's Network against US Militarism

(나)내용 :

①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오키나와, 필리핀의 사례를 통하여 미군 범죄와 현지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상황보고하면서 조직의 경험을 나누다.

②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 문제, 그리고 필리핀의 혼혈아들의 문제, 한국의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상황과 경험을 나누다.

③특히 북한 여성 탈출에 발표의 요지는 이 병의 (미군)군대는 물러가야한다는 내용이 었다.

### ◀전쟁의 근원 - 평화문화

Dialogues on Gender and Human Security (1999.5.13 9:30-3:00)

Building Women's Leadership for Peace (1999. 5.13 11:30-1:00)

If Women Ruled the World (1999.5.13 5:30-7:00)

Military Threats to Security : Women and Military Violence (1999.5.14 1:30-3:00)

Women and Globalization (1999.5.14 5:30-7:00)

## 헤이그 평화회의 한국 NGO 참가단 성명서

전쟁과 갈등으로 일룩진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돌아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등 대규모 전쟁과 크고 작은 온갖 분쟁을 겪었다. 이로 인해서 인류가 흘린 피와 재산 피해 그리고 인권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914년 발칸반도에서 시작한 세계 1차 대전 이후 인류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마침내 수 천 년 동안 이룩한 문명을 하루 아침에 파멸시키고 인류라는 종(種)의 멸망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핵무기와 온갖 재래식무기를 쏟아 놓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절멸(絶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종착점에 선 지금 이 시기에 또 발칸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포연이 가득 차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류는 90년대 초 지구를 덮었던 발냉전의 물결이 1차 대전 이후 80년 동안 전개된 전쟁과 갈등과 군비경쟁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지구촌의 풍경은 세계평화 대호세력의 단결이 없는 다가오는 세기도 전쟁의 세기가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100주년 기념 대회(the Hague Appeal for Peace)'는 전쟁과 군비경쟁을 불법화해서 새로운 천년을 평화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세계의 평화세력들이 함께 하는 행사이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100주년 기념 대회 한국참가단'은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첫 세기'로 만들고자 하는 헤이그 회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없이 전쟁을 일시 중단한 정전상태가 5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한반도는 발냉전의 물결에서 고립된 '냉전의 작은 섬'이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것이고 헤이그 회의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군비축소가 이루어지며, 비핵지대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참가단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것이며, 헤이그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평화운동과 연대하고 국내적으로 '평화운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냉전구조 철폐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활동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새로운 평화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이 지속되고 냉전시대의 군사대결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정치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남북한 정부 당국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조속하게 3국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군사적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전쟁의 씨앗을 제거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미국 군대는 소련과 북한에 군사력을 억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주둔해왔다. 그러나 소련이 시러졌기 때문에 군사적인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한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4자회담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군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의정부, 동두천, 평택, 춘천 등 한국의 곳곳에 주둔하면서 기지 무상 사용, 범죄, 여성 매머춘,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들을 과장시켰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기지를 퇴출고, 미군범죄와 기지주변에서 발생하는 여성 매머춘을 근절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미국은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한 정부는 군비축소를 단행하고, 인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군의 병력은 70만, 북한은 110만으로 추정되어 남북의 병력수를 합하면 미국보다도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다. 한국군의 군사비는 97년의 경우 140억 달러 가량이고 같은 해 북한은 30억 달러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군사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남과 북이 군사비를 감축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를 대안의 안보개념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위기를 화해와 공존의 민족공동체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넷째, 남북한 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대인지뢰 금지운동은 21세기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줄 선봉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대인지뢰금지협약이 발효한 것은 인도주의의 승리이고 인류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발효를 열렬히 환영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떠돌던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다섯째, 전역미사일 방어(TMD)계획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므로 이를 반대한다. 전역미사일 방어 계획은 요격미사일방어계획(ABM)위반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미사일 체계를 강화시켜서 끝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지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보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과거 일본의 군사적 침략에 피해를 입은 주변국가들을 불안하게 해서 동북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가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세기로 만들고자 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일본은 과거 대량학살을 일으켜서 주변국가를 침략하였고, 특히 여성들을 군대위안부로 끌고 가는 반항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일본이 군사대국화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의 군대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섯째, 우리는 2000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SEM에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면서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 현장에서 세계인과 함께 21세기 평화에 대한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21세기는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가 될 것이다.

1999. 5.

#### 헤이그 한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세계평화회의' 한국 NGO 참가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비밀연합, 새운동, 우리말미군기지퇴각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우리만족서모듬기독교운동본부, 이야기공동체, 제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한미군법리군법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참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한국대인지회내셔널의, 한국여성국제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5개 단체)

## 제네바에서 이외구니까지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인턴십을 마치며

작성/정경란

1999년 1월 15일, 10년 전만해도 외국 나가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나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제네바로 향했다.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이하 윌프 WILPF)의 '군축과 경제 정의' 인턴(Disarmament and Economic Justice Intern)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11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외국 생활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조디 윌리엄스의 한국 방문이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본 후 나는 내 진로를 결정했다. 앞으로 평화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제연대 분야에서 일하겠다고.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 제네바. 유엔 유럽연합 빌딩과 ILO 본부가 있는 한편, WTO 본부와 스위스 은행이 병행하는 도시. 음악 축제, 물축제, 통신 올림픽 등 축제가 끊이지 않고, 외교관, 국제기관 직원 등 스위스인 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는 도시. 서울에 비해 너무 평타적인 도시. 역동적인 서울에 익숙한 나에게 때때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도시.

지금 생각하면 당시 나는 무척 용감했다. 제네바에는 UN, UN 관련 기관, 국제 비정부 기구에 인턴들이 많다. 주요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인, 더 나아가 스웨덴인들이 인턴이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국제시민사회단체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영어를 전라도 억양으로 하는 나에게 영어는 큰 도전이었다. 국제연대를 위해 넘어야 할 영어. 어렵게도 영어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기에 인턴십을 마치게 되었다.

윌프는 1915년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1,200여명의 여성들이 헤이그에 모여 전쟁을 반대하며 영원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결성한 평화단체이다. 윌프는 전쟁, 폭력, 착취와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평화건설에 연대하기를 바라는 여성을 조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윌프는 여성의 권리, 평등, 인간과 공동체의 통합, 군축, 전쟁예방, 갈등의 평화적 해결, 모든 민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을 추구한다. 현재 40개국 이상에 지부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UN 경제사회 이사회, UNICEF, UNCTAD의 협의신분

1) 윌프의 정세국정인 정경란씨가 1999년 1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WILPF 인턴십을 하였다. 그리고 인턴십을 마치고 일본 평화단체를 방문하였다. 이 글은 인턴십과 일본 평화단체 방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Consultative Status)을 가지고 있으며 ILO, FAO와 특별관계를 가지고 있다. 월프는 젊은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한 인권 및 군축과 경제정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 분야는 유엔 인권위, 인권소위를 모니터하며 유엔 인권위 기간 동안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 대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NGO의 성명서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검토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군축 분야"에서 인턴은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를 모니터하고, 유엔군축연구소(UNIDIR) 및 평화단체의 군축 및 평화운동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군축비정부기구협의회(NGO Committee for Disarmament) 회의에 참석한다.

제네바군축회의는 66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매년 3번의 회기를 통해 국제평화와 군축을 논의하는 유일한 다자군축협상체이다. 이 회의는 핵군축, 우주의 무기 경쟁 금지, 소형무기 금지, 회원국 가입 문제 등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화학무기금지협정, 포괄적실용금지 협정이 제네바군축회의의 성과물이다. 하지만 발칸전쟁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National Missile Defense) 등으로 인해 국가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오직 소수의 비정부기구들이 이 회의를 모니터하고 외교관들과 의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월프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해마다 군축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제네바군축회의에 여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제네바군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낭독된다.

비정부기구군축협의회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에 있으며 평화단체들이 이 협의회에 참여해 공동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일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UN을 상대로 한 평화단체의 로비는 대인지회, 소형무기, 핵군축 등을 제외하고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지난 해 5월 헤이그세계평화회의에서 월프는 6개 회의를 조직해 회의 준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국제평화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비정부기구가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었다.

"경제정의 분야"에서 인턴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기간 동안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사안을 정리하며, 유엔무역발전회의(UNCTAD) 행사에 참여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 참석은 유엔 페미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평화단체와 대조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서 비정부기구는 발언권을 갖고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발칸전쟁과 동티모르 독립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각국의 전략과 대응, 유엔의 한계와 역할, NGO의 대응을 볼 수 있었다.

월프는 중국주의적인 성향과 연결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지구화)과 경제적 부정의의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도전에 대응하는 미래지역 여성들- 평화를 위한 대안적인 발전전략을 추구하며'라는 회의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시아 국가들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난 10개월 동안 남편과 아이를 남겨두고 제네바에서 지낸 생활은 나에게 세계적인 인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였다. 한국인을 넘어 세계인이 되는 것. 한국 안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

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 행운에 감사한다. 제네바에서의 때  
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

#### 월드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레회의

월드는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 지구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여성-아래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대안적인 발  
견전략을 찾아"라는 주제로 아레회의를 열었다. 나는 월드의 인턴으로 그리고 한국인 대  
표로 이 회의에 참석해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회의는 일본 교육부, UNIFEM, 일본 월드의 후원으로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들, 미, 일, 캐나다 등 산업발전국가들, 아시아 경제발전모델로서 NIEs 국가 등 13개  
국가 여성들이 참석해 경제적 지구화의 영향과 이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여성들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국제 NGO 사이에서 경제의 지구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  
제의 지구화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  
(UNDP)이 발행한 '인간개발보고서 1999'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수입 최상위 국가  
에 사는 세계 인구의 20%가 세계 GDP의 86%를(최하 빈곤층 세계 인구 20%가 세계  
GDP의 1%), 세계 수출시장의 82% (최하 빈곤층 세계 인구 20%가 1%), 그리고 세계 200  
명의 최고 갑부들은 1998년까지 4년 내 그들의 순 재산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고 1조 달  
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500개의 초국적기업(TNC)이 세계 무역의  
2/3을 통제하고 있다.

주제강연에서 필리핀의 피델리는 아래지역 여성들이 당면한 세 가지 과제로서 사회의  
취약층, 특히 여성들의 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을 받게 하는 자본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항하는 투쟁, 지역 내 민중 지향적인 발전과 평화를 진전시키는 것, 기층여성운동과 국  
제연대를 진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진정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빈곤  
이 지속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만드는 가부장제 구조를 변화시켜  
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각각 보고를 통해 각각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모  
든 국가들이 경제의 지구화 이후 경제 구조조정과 함께 국유, 공유재산의 사유화, 보호정  
책의 폐지와 함께 자유화, 정부의 팀규제를 경합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노동자를 정규직  
에서 계약직으로 밀어내고 사회보장기금의 액수를 줄이고 짐이 없는 사람을 늘리고 있  
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경제적 지구화 이후 다수 국민의 생활이 악화되었고, 뉴질랜드  
는 경제 구조조정과 교육의 사유화로 학생 및과 자살율이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고실업률, 물가 인상, 여성 해외취업, 성폭행 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지구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일  
례로 3세계와 함께 하는 공정무역, 직접 민주주의 컴퓨터 네트워킹 체제,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제네바에서의 "국가간 전쟁과 내전", '아래지역에서 핵군축: 아래 비핵화를 위한 여성

들의 노력, '군국주의와 인권 침해', '미군기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환경, '외세/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발전, 노동의 일용화와 그 의미', '해외 개발원조와 그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국가간 전쟁과 내전' 토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아체지역의 독립투쟁과 스리랑카 정부와 LTD 사이의 내전의 고통을 논점으로 호소함으로써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탈냉전 이후 미소 양극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양극체제로의 전환은 본질을 막을 견제와 균형을 상실해 1990년 이후 1970년대에 비교해 분쟁이 5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 난민 등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와 정치범이 증가하였다. 정부가 내전을 막는 데 실패함으로써 비정무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미군기지' 토론에서 주일미군, 주한미군, 필리핀의 방문군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 등이 논의되었다. 미-일, 미-한국, 미-필리핀, 미-호주, 미-타이완의 관계가 미군에 의해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1997년 오키나와 미군의 소녀 유간 사태에 대응하는 일본 평화단체의 활동을 담은 비디오는 일본 평화단체가 주일미군기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회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행동계획은 WTO, 군사주의,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회의에 맞춰 NGO회의는 11월 27일에서 12월 3일에 개최되고 이때 WTO에 저항하기 위해 붉은색, 녹색과 자주색 리본을 착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WTO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군사주의와 관련하여,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항하는 폭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분명히 하고, 군사주의에 대항해 '국제여성폭력저항의 날'인 11월 25일에 촛불을 밝히고 노래하는 등 시위를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에서 군사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해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의 행동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불씨가 벌어지고 있고 이 불씨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피땀어린 투쟁이 얼마나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심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일본 평화단체 연대를 위해

1999년 10월 23일 미국천우봉사회(AFSC) 일본사무소가 개최한 일본 평화단체 실무자들과 한일 평화단체 연대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III에 대비하기 위해 NGO 평화 안보 본과 간사단체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요청과 미국천우봉사회의 주선으로 개최되었다. 나는 워프 글로벌라이제이션 회의 참석 차 일본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평화여성회의 요청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국 천우봉사회의 존 페퍼의 사회로 진행된 이 회의는 각 참가단체의 활동 사항을 교환하고 향후 한일 평화단체의 연대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모임에 참가한 일본단체는 겐슈교, 겐슈진, 일본평화위원회, 피스디포이다. 겐슈교 (Gensuikyo: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e Bombs)는 일본에서 유명

하고 규모가 큰 두 개의 반핵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는 매년 8월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까지 10,000명 이상의 반핵평화시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9년 세계대회에는 녹색연합과 피폭자협회가 참석하였다고 한다. 겐슈교는 일본 공산당, '구원이 있으며 재내바 군축 NGO위원회'에 친한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일본의' 가장 활동을 활발하는 평화단체로 평가받기도 한다.

일본의 당대 반핵단체 중 다른 하나인 겐슈긴 (Genshukin: Japan Congress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은 매년 8월 히로시마에서 만명 이상 참석하는 반핵평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관계가 있다. 현재 일본 사회민주당의 위상 하락으로 겐슈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평화위원회 (Japan Peace Committee)는 미군기지, 미일동맹 체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평화단체이다. 2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일본 평화대회 (Japan Peace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피스 데포 (Peace Depot)는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대한 일본 내 연합단체로서 지역안보와 미일방위협력신기아이드 라인 등에 관심이 많다.

나는 1999년 5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평화회의에서 배포되었던 한국 NGO 성명서에 나온 NGO의 입장과 그 회의에 참가한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단체들을 소개하였다. 이 모임에서 일본평화단체들은 한, 일 평화단체의 연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기층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한일 평화단체의 만남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한일청년포럼 형식 (한-일-제일동포 3자 연대, 한일 교환 방문 및 세미나 개최)을 가능한 연대방식의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평화단체들은 한국 평화단체 쪽에서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보내올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평화단체의 주 관심사는 현안인 미일방위협력신기아이드라인, 미군기지, 반핵문제 등이고, 한국 평화단체는 이런 현안과 함께 정신대,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 등도 주요한 관심사임을 표명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미일방위협력신기아이드라인에 반대하는 한-일 여성피스라인 (peace line) 구성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성평화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천우봉사회에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평화단체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모임이 끝난 후 당초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가 사정에 의해 불참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및 피스 보드(Peace Board)를 미국천우봉사회의 도움으로 방문하였다.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는 이 단체의 회장이 대구리온드 회의에 참석해 우리에게도 좀 일러준 단체로, 아태지역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위기, 미군기지 등 현안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센터이다. 여기에서 AMPO리는 집계를 발간하고 있다.

피스 보드는 헤이그 세계대회에서 한반도 일본 비핵지대화화를 위한 모토회에서 남북일

전문가를 초청해 관심을 집중시켰던 단체이다. 이 단체는 피스 보드가 분쟁지역을 순회하며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문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미일 가이드 라인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여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9년 8월 북한 반핵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권승진과 함께 반핵시진전을 명양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만남은 일본 평화단체들의 활동과 한일연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는 계기였다. 일본단체들은 과거사 문제보다 현안인 미일 가이드라인, 반핵문제 등에 관심이 있으며 2000년 7월에 개최 할 예정인 오키나와 G8 정상회담과 아세안지역포럼 모임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위한 정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점은 일본 내 평화단체들은 정당과의 관련 여부나(권승진, 전승규, NGOs), 지역에 따라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21일 “신 가이드라인과 그 입법화에 반대하는 국민연립회”의 주도로 5만명이 모인 미일신가이드라인 반대 집회는 약 20년만에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공동으로 참여해 회제가 되기도 했다.

아셈 2000 NGO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평화단체들은 밀레니엄 포럼, 오키나와 G8 회담, 아셈III를 서로 연결하는 연대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평화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느 특정단체와의 연대보다는 공동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 관계를 다지고 이를 통해 향후 사안에 따라 특정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

일본은 반핵운동이 어느 나라보다 발전한 나라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알려준 사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평화운동을 이해하고 원자폭탄의 참상을 알고 싶어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히로시마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였다. 내가 방문한 히로시마 평화문화재단은 다양한 원재료와 비디오, 오디오로 그 때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었다. 당시 원폭 피해자의 20%가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평화공원 구석에 위치한 조선인 묘지는 제일인단의 요청으로 공원 밖에서 안으로 이전된 자 얼마되지 않았다고 한다.

히로시마 평화문화재단의 소개로 만난 피폭자와의 인터뷰는 당시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전쟁에 동원되었는지, 피폭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만난 피폭자는 피폭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25번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다.

내가 방문한 날 많은 학생들이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국내나 외국 방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교원노조가 발전한 일본은 교원노조에서 학생들에게 히로시마 방문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근국주의화 비관으로 학생들의 방문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에게도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도시나 교육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원폭돔(A-Bomb Dome) 옆에 지리한 학생수도묘소였다. 히로시마 시는 원폭과 직접관계가 없는 태평양전쟁에 징용된 학생수도묘소를 원폭돔 옆에 이전



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의 회생을 강조하는 듯한 왼쪽의 찬상을 외곽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이며 왼쪽의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히로시마는 평화운동가라면 한변쯤 돌려야 할 곳이다.

#### 일본평화대회 참석: 일본기층평화운동을 보다

나는 제네바에서 열린 군속NGO위원회 정례모임에 초청된 전수교의 국제연대 담당자의 소개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이과구니에서 열린 일본평화대회에 참석했다. 일본평화대회는 일본평화위원회가 조직하는 연례행사로 미군기지반대 활동가들을 비롯한 평화운동가들이 모여 세계인보필서와 동북아 평화 관련 국제심포지엄과 미일군사동맹문제와 미군기지 문제를 다루는 일반 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21세기 인간안보에 기반한 전쟁 없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심포지엄은 미국친우정사회의 낸시 알렉이 '평의를 가진 평화, 이따리의 '평화활동가에 축복을'이라는 단체의 키지아노 리시노가 '아비아노 공군기지가 미국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한국의 군산미군기지반환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섭이 '한국에서 미군기지 상황, 중국 평화군축 인민회의의 부서기 지에 지휘동이 '미일 방위협력 신기이드리인의 부정적 영향, 일본 전국노조총연맹(전노련)의 이쿠야 니시카와가 '평화에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세위다'를 발표했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NATO의 신개념에 대한 평가와 동북아 전략 및 이를 위한 미군기지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낸시는 미국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치아노는 이따리 아비아노 나토 공군기지가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위해 미군에 어떻게 기여했고 공중 폭격의 피해가 어떠한지를 설명했다. 한국 참석자인 김종섭은 한국의 미군기지 상황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주장했다. 중국 참석자는 미일 방위협력 신기이드리인이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이끌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나는 나토의 신개념, 탄도미사일방어체제, 미필리핀 사이 방문국협정의 체결 등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재군국주의화를 비판했다. 일본 참가자는 평화를 위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연대와 협동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평화대회는 개최식, 이과구니 기지 방문, 주제별 토론, 문화행사, 폐막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대회에는 일본 각지에 있는 1500명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해 각 지역에서 평화운동의 동향-미군기지 반대운동, 학습모임, 신기이드리인 반대운동, 일본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을 공유하였다. 나는 미일신기이드리인 관련 전쟁범죄에 대한 주제토론에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활동에 감명받았다. 일본에는 130여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일부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지들은 동경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미일신기이드리인 관련 법안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 민간 공회와 민간 항구를 이용하고 이를 기정 사실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대회는 무엇보다 일본 기층평화운동의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19일 오후에 수상의 방한에 의하여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일본대사관에 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월 23일 일본 중의원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의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라인)관련법안 채택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에 관련한 한국사회의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일본정부는 1997년 9월에 확정된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New Guideline)을 실효화시키고 유시입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주변사태법>, <ACSA(물류·용역상호제공협정)개정안>, <자위대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변사태라는 이름아래 일본의 자위대는 물론이고 지지체나 민간까지도 총동원의 비군의 전투 또는 전쟁행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국민 전세계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유시입법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최근 동향은 일본주변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 피해의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사는 한반도 국민에게 이는 매우 공포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머우기 정신대할머니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채, 전후처리보상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전쟁체제를 갖출 뿐만아니라 북한의 로켓발사를 발미삼아 미일전역미사일 방위구상 공동연구 계획을 세움으로써 정찰위성도입을 서두르며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는 것은 과거 아시아를 짓밟았던 침략자, 일본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절대 반대한다.

일-미 동맹체제와 일본의 이런 군사대국화 기도는 북한의 강경체제를 부추기고 중국의 제무장을 자극하며 언제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반에 군비경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는 냉전 시대의 긴장이 여전한 한반도나 분쟁집적지역, 대만해협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역과 전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 협력의 기류를 가로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멀어지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둘째, 일본은 신 가이드라인의 관련법 입법화를 철회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하라. 일본은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의 입법화와 군사대국화가 전쟁포기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의 평

복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 입법화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지금 일본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일본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사화나 전쟁준비 대신 대화와 협력의 기초한 평화외교노선을 세우고 과거 전쟁에 대한 결의한 성실과 함께 아시아 전쟁피해자들이 대한 진우보상(對韓慰勞金)을 책정하는 일이다.

지금 인류는 전쟁과 피로 얼룩진 역사의 한 시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열리는 천년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진실로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외교, 군사문제를 각각 경우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갈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 법제화를 반대하며 이례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한반도와 아시아 및 전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할 군사대국화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2. 일본정부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변 사태법>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일본을 군사화하는 <유사입법> 기도를 중지하라.

3. 일본정부는 북한과 극고정성화를 도모하고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준비 대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한국사회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킬 것이다

1999년 4월 14일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계혁국민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저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명서 일아번역본

日本國內閣總理大臣 小淵惠三殿

差し出し：韓国の9の市民團體（經濟連統一協會、民主改革國民連合、民族の和解と統一のための宗教人協議會、自主平和統一民族會議、參與連帶、平和をつくる女性の會、韓國教會女性連合、韓國キリスト教教會協議會、韓國女性團體連合、以上9團體）

月日：1999年4月14日

件名：日本の軍事大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の採擇に反對する市民團體の立場表明

1. 小淵首相と日本政府に平和のメッセージを送り、ご挨拶申し上げます。

2. 韓國の女性團體と市民團體は去る3月19日小淵首相の訪韓にあたり、“日本の軍事大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の採擇に反對する集會”を開き、聲明を發表した後、日本大使館に書簡と聲明書を提出しています。

3. しかし最近数々は、4月23日、日本の衆議院「ガイドライン特別委員會」の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採擇に関する衝撃的なニュースを耳にし、これに對する韓國社會と市民團體の反對の立場を改めてお考え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れに韓國社會の著名人の立場と市民の思いを集め、別添の通り聲明書と署名をお送りします。

4. さらに、日米防衛協力指針に反對する9つの市民・社會團體は、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を審議している日本衆議院「ガイドライン特別委員會」の法案採擇と衆議院通過に際し、日米「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が示している日本の軍事大國化の危険と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及ぼす影響などについて説明會及び記者會見を開く予定です。

5. 現在韓國社會は冷戦秩序を解體し、和解と平和の時代に向かって努力をしています。朝鮮半島の平和と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日米新ガイドラインである関連法案が撤回されるよう日本政府の責任ある對應を求めます。

6. 日本政府と小淵首相の平和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日本軍事大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採擇を反對す市民團體の立場

韓國の女性團體と市民團體は、去る3月19日小淵首相の訪韓にあたり、“日本の軍事大

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採択に反対する集会”を開き、聲明を發表した後、日本大使館に書翰と聲明内容を提出している。しかし、最近状況は、4月23日、日本の衆議院「ガイドライン特別委員会」の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採択に関する衝撃的なニュースを耳にし、これは對する韓國代官と市評議員の「野」の立場をここで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最近日本政府は1997年9月に前定された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新ガイドライン」を實施化させ、有事立法體制を確立するために今年4月に開かれた國會で「周辺事態法」、「ACSA（物品、受給相互供給協定）改定案」、「自衛隊法の一部改定案」を通達させようとしている。この法案は周辺事態という名の下、日本の自衛隊はもろもろのこと、自治體や民間までもを牽動し、米軍の戦闘または戦争行為を支援するように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日本國民全體に戦争を強要する有事立法の道を開く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日本の最近の動向は、日本の周辺地域に住む人々に非常に衝撃的なものである。日本軍國主義と戦争被害の悪夢を生々しく記憶しており、特に戦争の脅威を抱いている朝鮮半島の國民にこれは恐怖のニュースである。特に日本軍「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の苦痛を徹底して無視したまま、戦後處理残存問題も解決していない日本が、再び戦争體制を確立するだけでなく、北朝鮮のロケット發射をきっかけに日米全域ミサイル防衛構想共同研究計畫を立て、偵察衛星導入を急ぎ、軍事大國化の道を再構築することは、過去アジアを踏みしめた受給者である日本の姿を再現するものであり、これは斷固として見送ることとはできない。

第一に、日本の軍事大國化の企てを絶対反對する。

日米同盟體制と日本のこのような軍事大國化の企ては、北朝鮮の強行體制を振り、中國の再武装を刺激し、いつでも朝鮮半島に戦争を引き起こすことができ、東北アジア全般に軍備競争を促すという點から絶対に否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軍事大國化の企ては冷戦時代の緊張が續く朝鮮半島や紛争帯在地域、臺灣海峡を取り圍む東北アジア地域と全世界に、新たな戦争の脅威と緊張を及ぼすであろう。これは築かれつつある南北間の和解、協力の氣流を塞ぎ止め、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對する希望を遠のかせてしまうことは明らかだ。

第二に、日本は新ガイドラインの関連法立法化を撤回し、平和憲法を遵守せよ。

日本は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の立法化と軍事大國化が、戦争放棄を保障している日本の平和憲法を違反するという點から、この度の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立法化を撤回するのが妥當である。今、日本の安寧と平和のために日本政府が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は、日本の平和憲法の精神に従って軍事化や戦争準備の代わりに對話と協力に基づいた平和の外交政策を打ち立て、過去の戦争に對しての謙遜な省察とともに、アジアの戦争被害者に對

して戦後賠償道理を徹底して行うことだ。

今日人類は戦争と血に染まった歴史の半世紀を塗り、新しい千年を目前にしている。我々市民は、新しく幕を開ける千年が「戦争のない平和の世紀」となるよう心から願っている。このために我々市民は、これ以上、外交、軍事問題を各國の政府だけに任せておかないであろうし、戦争を防ぎ平和を實現することに強力なパートナーとしての役割を遂行するであろう。

以上の理由で我々は新ガイドラインである関連法法制化に反対し、以下の事項を強力に要求する。

一、日本政府は朝鮮半島とアジア及び全世界に新たな戦争の脅威と緊張を引き起こす軍事大国化の企てを即刻中止せよ。

一、日本政府は國會に上程している「周辺事態法」等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案を即時撤回し、日本を軍事化する「有事立法」の企てを中止せよ。

一、日本政府は北朝鮮と國交正常化を図り、アメリカは北朝鮮と平和協約を採擇し、戦争準備の代わりに朝鮮半島の緊張を緩和し、アジアの平和を定着させる平和政策に轉換せよ。

上の要求事項が貫徹されない場合、韓國社會の市民團體の組織的な反對運動を持續的に強力展開するつもりであり、國際社會に積極的に世論を働きかけるつもりだ。

1999年4月14日

参加團體：経實連統一協會、民主改革國民連合、民族の和解と統一のための宗教人協議會、自主平和統一民族會議、参同連帶、平和をつくる女性の會、韓國教會女性連合、韓國キリスト教教會協議會、韓國女性團體連合、以上9團體

## 일본의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4.29)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입장

우리는 지난 4월 29일 일본의 중의원에서 통과된 [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과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시민단체의 공동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1. 급변 논평에 의하면, 이 관련 법안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군의 군사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논평하고 있는바, 이는 이 법안이 향후 불려올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냉전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 법안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이 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건구해야 할 것이다.

2.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서 "법안의 운용에 있어서, 일본이 (중략)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앞으로는 우리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이른바 "주변사태"는 '한반도 유사사태'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일본의 미군 추방지권, 이로 인한 지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향후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놓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 정부는 논평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미 신가이드라인]의 발효가 위의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며,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길을 미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긴박한 군사화, 냉전화의 흐름에 무감각한 정부의 소극적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분명한 현실인식 아래 [일-미 신 가이드라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과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과 일본과 미국에 보다 자주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9. 5. 3

강실연 통일협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제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서해교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의 입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여성들은 지난 6월 15, 16일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교전사태에 따른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서해 사태는 무력충돌위험을 높이고 살아가는 한반도의 문명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미방위협력지침의 통과로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점에서 서해 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 당국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오토비사건, 조격정사건 등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연이은 사건들이 터져나오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하지, 과거 군사정권이 하던 것처럼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더욱더 정부 당국은 군사적 충돌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언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서해 교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생활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성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남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병력 철수와 정치적인 대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서해 교전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며, 인명피해를 초래케 하는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히 밝히면서 서해 일대의 모든 병력철수와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 남북한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 명시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우리는 남북 당국이 서해 교전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 약속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3. 정부 당국은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라. 우리는 정부 당국이 이번 사태에 냉철하게 대응함으로써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냉전구조 해체와 민족화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북포용정책의 진일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4.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이 사태의 본질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이번 사태를 완화시키는 방향적이고 과징된 보도를 지체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 6. 17

한국여성단체연합/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동티모르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아시아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역사적인 동티모르의 독립투표 이후 민병대에 의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살인만행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동티모르 민중의 고난에 연대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동티모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8월 30일의 역사적인 동티모르 독립투표의 결과를 수용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군대와 경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이로써 동티모르인들이 자국의 처안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나갈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 군대와 경찰은 살인적 민병대에 대해 조직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는 민병대가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주의적 범죄(a crime against humanism)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병대의 만행에 대한 지원 중지, 이에 관련된 군간부들의 구속 및 만행에 대한 국제기관 및 인권단체의 조사,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민병대 확살과 만행의 책임자의 구속, 재판, 처벌을 위한 국제법정설치를 수용해야 한다.

3. 인권단체들과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티모르에는 약 14만명 이상의 동티모르인들이 피난 또는 추방되어 있으며, 독립을 지지하는 사범들과 사제와 수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살인만행 등이 동티모르로부터 철수하는 민병대에 의해 더욱 심각하게 저행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 뿐 아니라 서티모르에서 활동중인 민병대의 즉각적인 해체, 그리고 그 책임자들의 체포, 구속하고, 구금한 인사들의 석방과 동티모르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이 귀환하기 전까지 인도적 대우를 베풀어야 한다. 즉 식량과 의료품, 의복 및 주거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유엔 기관과 구호기관, 인권단체들 및 언론의 접근과 취재, 구호품의 제공을 보장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 민간단체 및 Xanana Gusmao를 비롯한 동티모르 지도자들에게 협조해야 한다.

4. 서티모르의 Tatung에 구금되었다가 추방된 The Nation과 Pacifica의 통신원 Allan Naim 기자의 소식은 동티모르와 서티모르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동티모르의 상황을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통티모르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국가보안법(State Security Bill)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민중의 민주화운동, 아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1999년 9월 21일

####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피전화연방, 한국성신대문제대책협의회, 천주교여성공동체, 기록여민회 (이상 무순)

### MESSAGE to Indonesian Government for Peaceful Resolution of East Timor Situation

Since the historic referendum for the independence of East Timor on 30th of last August, there have occurred horrible atrocities and violence on Timorese people by paramilitary forces, which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deeply raged and saddened to witness. Korean Woman's organizations which have wished people's welfare and peace in Asian region express our deep sympathy toward Timorese people's suffering and confirm further solidarity with them. Furthermore, we call upon Indonesian government to put full effort to resolve East Timor Situation peacefully.

1. If Indonesian government concede to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on the future of East Timor on 30th, August, It has to withdraw all of its army and police. Thus, Indonesian government should respect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East Timorese people which will secure the order of their territory.

2. Indonesian army and police has supported appalling crimes of paramilitary forces(militias) systematically. This indicates that Indonesian government got involved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militias at least indirectly. Indonesian government, therefore, has to stop its support for militias immediately and accept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arrest, trial and punishment of those authorities who have been responsible for all killings and atrocities happened in East Timor. Also Government has to take investig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all those involved in military.

3. According to the reports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journalists,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forty thousand East Timorese who escaped or forced away in West Timor. It is greater concern that militias will worsen their human rights abuses and inhuman killings and crimes against people voted for independence, priests, nuns and women while their withdrawal from East Timor. Indonesian government, with this situation in mind, has to give official orders to dissolve militias in East Timor as well as in West Timor immediately.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of arresting authorities in charge for inhumane acts. Until Timorese people return their places safely, the Government should treat them from a humanitarian basis, which includes: to furnish them with food, medical aids, clothes and clothing, to allow free access and coverage of Timorese people by outside media and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Relief agenci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allow supply of aids, to cooperate with East Timorese leaders such as Xanana Gusmao and other civil groups for safe return of Timorese people.

4. It is evident from the news of Allan Nairn, reporter of 'The Nation' and 'Pacifica', who had been detained in Tarung, East Timor without legal process and deported out of Timor that there is no guarantee of free coverage and safety for journalists who are covering reports in East and West Timor. Indonesian government should guarantee safe and free coverage by foreign journalists, so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rasp the accurate situation in East Timor.

5. As we witnessed from ongoing East Timor Situation, Indonesian government should repeal Safety Security Bill,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afety Security Bill greatly impedes democratization movement of Indonesian people, while it encumbers democratic development in Asian regions as a whole.

21th Sep. 1999

*Korean Woman's organizations*

Women Making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Women Link  
Korean Women's Hotline,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Korean Catholic Women Community,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 국정감사시민연대 국방위원회

간사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가단체: 국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대 (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제주평화 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국방 5개년 개혁과제의 추진 실태와 문제

- 군복무자의 안전실태와 복지개선 현황 - 군의문사 해결과 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담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 보상문제 (담당: 경실련통일협회)
- 중형수송기 CN-235 후속구매사업 의혹 (담당: 참여연대)
- K1 전차 포수조준경 남몰 관련 의혹결 (담당: 참여연대)
- 중형잠수함 도입문제 (담당: 제주평화통일민족회의)

국방부, 기무사, 조달본부,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합동참모본부, 정보사, 육군본부, 육군군수시령부, 육군복제근부지원단, 공군본부, 해군본부, 육군 제2군사령부, 위상성전차, 해군직전시령부, 주한대중공업, 군인공제회, 특전사, 병무청, 육군교육사

위원장: 한영수(자. 788-2486, 788-3529)

한나라당: 허대명(간사), 김덕, 박세환, 서형원, 이한동, 정재문, 하경근,  
하순봉, 황낙주

국민회의: 정명달, 권정달, 김상현, 김영배, 안동선, 임복진, 장윤병,

저민련: 이종복, 박태준, 김종호

## 국방위원회에 대한 항의서한

국정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들은 99국정감사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8일 발족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 소속 국방부모니터 담당 단체들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이신 귀하께서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국감에 대한 본 국감시민연대 국방부 모니터단의 방청신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국방부 자체가 민간인 통제시설이며, 국감장에 나오는 정성급 인사들이 그 자체로 이미 보안사항이므로 국가안보기밀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방청을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니터단은 이러한 귀하의 조처가 국민의 알 권리, 감시할 권리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 표시와 함께 이에 대해 명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전개되는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한차원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본 모니터단은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각 의원을 역시 이에 함께 공감한다고 믿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대상이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분야라 할 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며 막대한 혈세가 사용되는 이 영역에 대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새정부 국방개혁과제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방부 국정감사 활동은 과거와 달리 불가피한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방청신청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불허조치는 이 모든 개혁적 주석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비록 국방위원회가 몇 가지 불허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국방위원회가 3당 간사회회에서 국감모니터 요원의 방청 불허를 결정했다는 사실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국방활동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연 작은 관심과 노력이라도 기울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요청사항은 '국가기밀 보안문제'를 감안하여 비공개회의가 아닌 '공개회의'에 한해 방청하겠다고 한 것이었음에도, 국가기밀과 제한구역을 지론하며 이를 불허한

국방위원회의 조차 역시 쉽지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개회의는 방송신문기자들의 취재보도가 허락되고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해 시민 모니터단이 방청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모니터단은 국민의 대변의자 할 권리와 국방 "군", "공", "기" 자료를 다룬다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생계로 하여 시민참여 보장과 정보공개 확대라는 민주적 발전의 길에서 앞질러, 융합한 현실에서 시민감시의 화살이 비껴가기만을 바라는 국방 권보의 낮은 반개혁적 시고방식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귀하에서 국방위원장이자 3당 간사회의 제스짐을 요구하여 조속히 모니터단의 국방위원회 극장감시 방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국방부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비록 늦었지만도 국방부감시활동의 일부라도 국민 앞에 공개되어 신뢰받는 새국방의 가능성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료는 <http://www.ngokorea.org>에도 올리겠습니다.)

1999년 9월 30일

####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

(당회공감드논여성회, 참여연대, 강실현통일협회, 자주평화통일인력회, 평화인공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결성선언문

### 불평등한 SOFA 50년 - 그 아픔의 역사를 담고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이땅에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끊임 없이 없었으며 그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신음소리 또한 끊임 없이 없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장년심야 폭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어쩔 수 없는 어머니가 있고, 흉수가 예상이 되어도 미리 손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피해를 당해야 하는 시민들과 공무원도 있었으리라. 미군기지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는 산과 들이 넘쳐나고, 오늘날 경음을 내는 전투기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아이가 있으니, 과연 이나라가 누구 땅이며 누가 지켜왔는데 이런일이 생긴단 말인가!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협정중의 하나인 대전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되는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자국내에서 자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진정한 정부로서 가치가 있던 말인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이것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이시대에 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있을 수 있던 말인가?

이에 우리는 오늘 이저리에 모여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불평등한 SOFA 개정이 선지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평화와 상호평등한 국제관계의 대명제하여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무성외와 비협조로 일관해온 미국의 행정당국에게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올바른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SOFA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력과 열의부족으로 종래의 불평등요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현상태까지 이르게 한 한국정부당국도 모든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통해 SOFA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SOFA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모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국내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펼칠 것이며, 나아가 한미간에 맺은 모



은 불평등협정을 개경하는데 힘을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영속히 다짐한다.

1999년 10월 6일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문정현, 김현, 민영호, 이우경, 이장희, 장원, 장주영, 채수일, 홍근수)

건강사회를어는체과의사회/녹색연합/미군기지전국공동대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반호시모임/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사회개혁요무단/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민연함/전북평화의인원연대/제주4.3 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전주요안권위원회/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전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의참여로가는인원연대/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지역단체포함 106개)

## 노근리 미군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슬픈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

1950년 7월 400여명의 중국 영종 노근리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동안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와 미국측에 수 차례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또는 증거가 없다' 라는 말을 되풀이 하여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었다. 최근 그 당시 참전 미군이 노근리 사건을 증언하고 비밀 해제된 군사 자료에서 양민 학살이 밝혀지면서 미국정부의 태도가 하루만에 변하여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한다.

400여명의 죄 없는 한국 국민이 이유없이 미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것을 미국정부가 이제껏 돌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수 차례의 권경에도 불구하고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역사의 아픈 진실은 묻어 돌지라도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노근리 주민들의 죽음을 묻어 둘 수 있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해서 한국의 경찰은 주한 미군이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부터 한국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책임있는 자세만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2의 노근리사태를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SOFA개정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 정부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측 그리고 피해자가 청구하는 공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명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 미국정부는 노근리 양민학살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건의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1999년 10월 6일

불명당한 SOFA개정 국민행동





